



정체성 전쟁

진정한 개인적 가치를 찾기 위한 여정

아드리안 에벤스

정체성 전쟁

아드리안 에벤스

저작권 2018 Adrian Ebens

이전 판에서 업데이트

ISBN-13: 978-1-57258-668-0

의회 도서관 통제 번호 : 2011903965

Duracell®은 Procter & Gamble Co. 소유이며 United States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Duracell®에 대한 언급은 순전히 삽화적인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며 Duracell® 브랜드 또는

그 모회사인 Procter & Gamble 와의 승인 또는 제휴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표기하지 않는 한

뉴 킹 제임스 번역 버전입니다

마라나타 미디어에 의해 호주에서 인쇄했습니다

Fatheroflove.info

adrian@identitywars.org

목 차

제 1 부. 두 왕국 - 잃어버린 정체성

1 장. 듀라셀 나무	5
2. 생명의 샘.....	15
3.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28
4 장. 패밀리 왕국	35
5. 가족의 위기	41
6. 지상의 지옥	49
7. 천국의 라이프라인	63
8. 두 왕국의 비교	74
9. 바빌론의 심장.....	81

제 2 부. 하나의 운명 - 되찾은 정체성

10 장. 듀라셀의 사슬을 끊다.....	91
11 장. 천국의 문을 열다.....	104

제 3 부. 자식의 관계로 돌아가는 여정

12 장. 듀라셀에 의해 동력을 부여받는 생명	112
13 장. 천국의 계단	119
14 장. 같은 신들, 다른 이름들	127
15 장. 어떻게 읽습니까?.....	139
16 장. 더 이상 종이 아닌.....	145
17 장. 바빌론의 몰락	152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벨,
나에게 당당하게 행동할 것과
항상 정직하고, 시작한 일은 끝을 내고,
그리고 결코 부당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바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에블린,
나로 하여금 계속 꿈꾸게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관대해지라고 가르치셨던 어머니께 바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동생 카렌,
나와 유년시절의 여정을 함께 공유했으며
종종 재빠른 재치를 발휘하여 나를 웃기게 해 준
여동생에게 바칩니다.

제 1 부. 두 왕국

- 잃어버린 정체성

1 장. 듀라셀 나무

그 방은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한쪽 벽 그곳에는 다수의 포스터와 팝 뮤지션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종종 현실에 대한 갈망의 창구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스포츠맨의 사진이 있었다. 또 다른 벽을 따라 몇 권의 교과서가 놓여 있는 책상이 있었지만, 이 책상의 중심적 특징은 작지만 강력한 스테레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실로 이곳은 야망과 격동, 그렇다 꿈의 모든 징후를 보여주는 틴에이저의 방이었다.

거대한 전투가 내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운명의 전투,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나는 바닥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아개념은 혹독한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전투로 인해 저는 지금 수확하고 있던 수확물로부터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전에도 여러 번 도움이 되었던 포스터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공기는 절망감의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불안정한 제 상태를 안정시켜줄 토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 애슬레틱 · 명료한 것은, 제가 잡은 토큰 중 일부였지만 지금 그것들은 나를 도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구역질 나는 구름이 내 위로 내려와 제 야망의 감각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중한 장소를 발로 걷어차 열고, 그들의 보물을 훔쳤고, 그러고 나서 그것은 모든 것의 가장 신성시되는 **희망**을 위한 체임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코 하지 하지 않겠노라 제 자신에게 약속하는 방식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난 제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변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 * * * *

우울증. 우울증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장애의 주요 원인입니다.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우울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2005 년에서 2015 년 사이에 18%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¹

2011 년도의 다음과 같은 통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봅시다:

- 매년 100 만 건의 자살. 40 초에 1 명꼴 또는 하루에 약 3000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각 개인마다, 적게는 20 회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하루에 6 만명이다.
-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은 지난 50 년 동안 주로 선진국에서 60% 증가했다.
- 전체 자살의 60%는 아시아에서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중국, 인도, 일본이 전체 자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²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인생의 어떠한 것이 그렇게 우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날에 직면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일까요?

Phillip Day (필립 데이)는 그의 저서 The Mind Game (마인드 게임)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노골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¹ http://www.who.int/mental_health/management/depression/en/

² <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34219.php>

예전에는 배려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주변에 모였었고, 우울해져 있는 친척에게 주의를 기울여 대화를 통해 사물에 대한 확신과 관심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 단위의 분열, 종교의 부정, 그리고 21 세기 바쁜 삶의 속도로 인해 많은 가족들의 분리가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예전에는 보살핌을 주는 친척이나 구역 목회자에 의해 행해져 왔던 카운슬링이, 정신분석으로 대체되어 버린 요인. 이것이 우리 사회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³

Phillip Day (필립 데이) 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가족 단위의 분열, (2) 종교의 폄하, (3) 그리고 21 세기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 많은 가족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요인은 가족 단위의 분열이다. 이 주제에 대해 David Van Biema 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세대가 성인이 되어,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깊은 슬픔과 이른 슬픔을 겪어왔다. 그들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단지 끝이 없어 보이는 팔랑크스의 선두에 불과하다.⁴

Jim Conway 그의 저서 '법적 및 정서적 이혼의 성인 자녀' 에서 (Adult Children of Legal and Emotional Divorce) 그는 법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분열된 가족의 영향을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손실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가 설명하는 주요 속성 중

³ Phillip Day, *Introduction* - http://www.campaignfortruth.com/Eclub/100702_depressionandsuicide.htm

⁴ David Van Biema, "Learning to Live with a Past that Failed," *People*, May 29, 1989, p 79.

하나는 불안과 끊임없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 입니다. ⁵

이러한 질문은, 인간의 딜레마의 즉 근원인 (의의(意義)의 감각) 으로 몰아세웁니다. 누군가 정말로 저를 신경쓰고 있나요? 내가 뭔가 가치가 있나요?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 인간의 정신에 그것들 자체를 포함시키게 된 것일까?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갑자기, 이브는 금지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무에서 먹는 것을 금지시켰을까?" 그녀는 의아해 했다. 과일은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 그녀를 앞으로 유혹했다. 갑자기 그녀는 나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탄은 자신의 기회를 보고 뱀의 매개체를 통해 그녀를 유혹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 하나 하나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⁶ 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은 이브에게 토론을 촉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에 대해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했다. 논란과 논리의 영역에서 이브는 사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기만과 어둠의 낯선 무기까지 더한다면... 이브가 입을 열어 기꺼이 참여할 의사 신호를 보낸다면 콘테스트는 엄청 짧아질 것이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⁵ Jim Conway, *Adult Children of Legal or Emotional Divorce*, (Monarch Publications, 1990) p 53.

⁶ 창세기 3:1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⁷ 이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그 도전을 받아들였으나 하지만 그녀는 지금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다. 사탄의 첫 번째 도전과 결합된 그녀 자신의 호기심이 어우러져 사탄의 다음과 같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⁸ 라는 그의 말에 그녀는 너무 놀라 그의 발언에 대한 반박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호적인' 토론이라는 맥락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곳' 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려 오기전 까지는 비교적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곱게 기름을 두른 톱니바퀴에 스패너를 던져 그것들을 정지시키는 무엇인가를? 그들이 한 말은 깊은 의미나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그들에게서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설마 그들이 그렇게 대담하고 매우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을 그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탄은, 지금 괴멸적인 정밀함으로 먹잇감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착화 시킨 것을 보고 그의 승리에 일격을 가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⁹

⁷ 창세기 3:2,3

⁸ 창세기 3:4

⁹ 창세기 3:5

이 몇 구절들은 작은 시골 마을을 통과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눈을 깜박이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놓칠 것입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도입한 개념이, 지금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주의 씨앗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의를 위한 투쟁 . 자유롭게 들리는 개념은, 인간의 영혼을 비참한 불행과 어둠 속에서 노예로 만들고 있는 사슬의 본질 그 자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들리시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개념을 푸는 동안 저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것을 야기시키는데 있어 그 열매와 그 역할을 살펴봅시다. "누군가 나를 신경쓰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가?"

내가 8 살쯤이었을 때, 내 여동생은 울고 웃고 심지어는 우유까지도 마시는 인형을 받았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생이 해야 했던 일은 건전지 두 개를 그 등편에 꽂아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여동생에게 몇 시간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했습니다. 잠시 후 울음소리가 정말 짜증이 나서 개에게 먹이고 싶었지만, 여동생 우는소리를 한 시간 동안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기는 (인형) 단순히 등에 건전지 두 개를 끼우는 것만으로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탄이 이브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브, 다른 누군가가 뭐라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 자신 안에 생명이 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당신 자신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야. 당신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당신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이 나무로 돌아오는 한 당신은 괜찮을 것이야.

당신은 18 개월 된 아기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을지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뒷마당에 있는 정원 요정이랑 (정원 장식용 난쟁이 석상) 얘기 중이었어,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 내부에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를 살아 있게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제공할 것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모든 도움에 감사하며,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을 하더군." 이것이 실제로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개념은 그들의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들에 총체적 의존의 감각을 파열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개인으로서 누구였는지 바로 그 토대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감각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실수를 단순히 깨닫지 못하고 하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렇게 단순했으면 좋겠지만, 당신 자신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관념을 받아들인 결과는, 단 1 초라도, 당신이 하나님과 원래의 원초적인 행복한 교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지만 먼저, 그 운명적인 나무로 돌아갑시다.

그들이 이 실과를 먹게 되면, 어찌 된 영문인지 그들의 눈은 더 높은 존재의 상태로 뜨일 것이라는 사탄의 제안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의 추론은 당신 본인 내부에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 우주에는 강력한 물체가 포함되어 있어 일단 당신이 소유하면, 당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 : 4,5 에서 사탄은 자신의 새로운 유토피아 왕국으로 개종자를 쟁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도 모드에 있습니다. 그는 왕국을 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권력과 만족을 약속하는 왕국을 제의했습니다. 이 왕국은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 외부의 어떤 후원자나 권위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이게 만드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우리의 환경에는 사람, 대상, 사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소유하거나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를 더 강력하고, 더 계몽적으로, 인생에 더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 악과 나무를 통해, 사탄은, 외부의 은인이나 권위가 필요 없는 삶, 배터리 구동의 존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의 제목은 듀라셀 나무. 사탄은 우리가 만약에 그의 인생철학을 따른다면 우리 몸의 세포는 영원히 내구성을 가질 것이라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 안에는 그들을 두려움, 죄가 있어 반항적으로 만드는 독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¹⁰ 그 독에 말은 사탄이 이브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독은 그의 왕국의 원칙이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¹⁰ 창세기 3:6

"아담과 이브가 실과를 먹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난 저 나무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했었던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그 나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 왕국의 독을 삼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 나무에서 먹고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 우리는 끔찍한 소화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생각은 자살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 생명의 샘

직장에서의 긴 하루였다. 우리는 예산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사실 약 90 여 건의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야 했다. 그것은 모든 야심적인 매니저들 사이에서 이용 가능한 수입을 나누는 미묘한 과정이었다; 각자 이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원하고, 희망하고, 심지어는 요구까지도 했다. 내 마음은 이 모든 수치를(數値) 내 머리에서 밀어내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아빠다 아들." 아빠 목소리는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의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이 들렸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 "엄마가 심각한 차 사고를 당했단다." 그런 말들이 마치 슬레지 망치처럼 나에게 타격을 주었다. 나는 즉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 심박수는 순식간에 말 그대로 두 배로 뛰었다. 아드레날린 이그사가

내 몸을 점령하면서 내 근육은 긴장되었다. "사고?" 나는 나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가며 거의 전화에 대고 속삭였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꽤 심각해 아들"

그 순간, 나는 그 전화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서 단지 아빠에게 매달릴 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차로 12 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고, 전화를 끊었을 때 내 마음은 빙빙 돌고 있었다. 충격과 두려움과 무감각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다. 바로 그때 나는 예수님을 기억했고 나는 그냥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다." 오 예수님, 제발 그녀를 죽게 하지 마세요"라고. 나는 성경을 펴고 그저 기도했고, 차분함이 나를 엄습해와 거의 평화로움을 느낄 때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은 나를 향해 다시 가격해올 때까지 삶의 세속적인 것들로 떠돌아다녔다 ; 두려움, 무력감 그리고 충격 나는 거듭 무릎을 꿇고 오직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

엄마는 음악 레슨을 가르치러 가는 길에 여행을 하고 계셨다. 그녀는 두 개의 차선 사이에 10 미터의 정원용 스트립이 있는 2 차선 고속도로에 있었다. 그녀는 그저 다른 차를 지나쳐 언덕 위를 넘어갔는데,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전부였다. 반대편에 있는 차 한 대가 통제력을 잃고 두 길 사이의 10 미터 간격을 가로질러와 엄마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충격의 힘은 엄마 차의 엔진을 방화벽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동시에 운전대를 그녀의 얼굴에 똑바로 들이밀었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그 순간 시트가 부서졌고 그것이 나는 정말 감사했다 그렇지 않았었다면 그녀는 즉사했을

것이다. 그들이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녀는 팔과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그리고 얼굴 왼쪽 전체가 붕괴되어 있었다.

엄마가 병원으로 실려 갔을 때, 마침 교대 근무를 마친 의사가 있었다. 그는 우리 엄마를 보자 즉각 그의 업무에 돌입하러 갔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8 시간 동안 싸웠고 마침내 많은 긴장된 순간 후에야 그녀는 안정되었다. 나는 정말로 그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릴 어떠한 말도 찾을 수가 없다; 지금도 그것은 나에게 눈물을 가져다준다. 그 남자는 16 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였고 그런 다음 사려 깊게도 새벽 3 시에 우리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비판적이지만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 나는 여전히 엄청나게 그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료종사자의 기술과 강인함 그리고 다정함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를....

며칠 후, 나와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률에 놀랐다. 우리는 그녀가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두 번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 심한 타격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었고, 나는 감사했다. 그것은 큰 타격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었고 나는 감사했다. 로렐은 엄마를 위한 의료일기 항목을 보면서 나에게 오도록 손짓했다. 그것은 그들이 엄마를 잃을 것 같이 생각했던 명확한 지점을 보여 주었으며 그런 다음 갑자기 모든 활력징후가 회복하여 그녀는 안정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나의 하나님은 그녀를 지탱시키기 위해서 주의 아들을 보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걷고 있고 가끔 그녀가 피아노를 칠 때, 나는 엄마를 어떤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생명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심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 1:16,17

우리가 보거나 지각(知覺)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창조되었으며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¹¹ 이 마지막 문장의 문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이 온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¹¹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기 상 - 29:14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25)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26)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27)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사도행전 - 17:24-28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의 생명과 친밀하게 관여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바울은 전체적 큰 그림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적이고 친밀한 수준인 제로까지 내려 놓습니다.

1. 그는 모든 나라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2. 그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있다면 단순한 논리는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 ...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¹² 고 말씀 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없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님에게 의지하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함의 (含意)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점을 설명하겠습니다.심장의 놀라운 기관을 사려 하십시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우리 몸 주위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 대한 놀라운 점은 심장의 맥동은 그 자체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근육은 신경계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자극 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내재적 규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 교과서가 말하듯이, "전도 시스템은 심장근 섬유가 수축하도록 자극하는 전기 임펄스를 발생하고 분배하는 특수 근육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¹³ 이 근섬유들은 신경계에서 오지 않는 전기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확실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해부학 교과서 어디에서도 이 심근 섬유가 어떻게 심장을 수축시키기 위해 이 전하(電荷)를 생산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전혀 다루지

¹² 요한복음- 15:5

¹³ Gerard Tortora and Nicholas Anagnostakos, Principles of Anatomy and Physiology, (Har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1984) p 463.

않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전문화되고 내재적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하며,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길이 갈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며." 사도행전 17:28.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소유로서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물학적 프로세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3:4. 이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쟁점입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 혹은 다른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해 중간노선을 택하고서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것은 마치 태엽 시계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작해서 그것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마치 하나님이 듀라셀 배터리를 제작해서 우리들의 안에다가 넣어준 것처럼. 성경은 이 생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밀리초마다, 1 초마다, 매 분마다, 매 시마다, 매 날마다를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시고, 우리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전하를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현실에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를 믿거나 또는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를 믿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이나 도전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 존재의 물리적인 부분만을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적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음 텍스트를 숙고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이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 2: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2) "들어라. 나는 유다 지파에서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러 (3) 그에게 **신통한 생각을 채워주어,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하겠다.** (4)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동으로 그것을 만들고 (5) 테에 박을 보석에 글자를 새기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일을 다 잘 해낼 것이다. 출애굽기 - 31:1-5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으로 드러냅니다. 골로새서 2 장 2,3 절은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의 예는 출애굽기 31:1-5 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인 기술의 지혜와 이해력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종종 아주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을 “재능이 있는”라고 언급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콘서트 한가운데로 이동시켜 봅시다. 재능 있는 젊은 여성이 무대 위에 인상 깊게 서있는 그랜드 피아노 건반에 그녀의 손가락이 위아래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면 관객들은 매료됩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피아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 마스터 손의 손길이 닿아서. 그녀는 그런 다음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우리는 종료가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녀가 계속할 것을 의도하지만 그러나 노래가 끝나고 관중은 열정과 강렬함이 견비된 품격과 우아함에 경외심을 느끼며 박수갈채를 터뜨립니다. 그 젊은 여성은 절을 하고 찬사의 향기를 들이마시고는 무대로부터 걸어옵니다.

잠깐 조금만 뒤로 물러서 봅시다 왜냐하면 이 흔한 시나리오에는 뭔가 흥미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관객들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만물 주께 찬양해』 노래이거나, 또는 비슷한 성질의 것을 불러야 합니다. 박수는 기술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피아니스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식에 행동을 하였다면, 우리는 성공에 의해 의기양양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실패에 의해 낙담하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 그 공로를 가질 수 없거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담을 느낍니다.

여기 듀라셀 나무의 저주가 있습니다. 드넓은 하늘을 나는 전통 패러글라이딩의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¹⁴ 우리가 성공할 때 경험하는 자유감은, 그 성공을 이루었다고 믿는 것은 지구 상공으로 수천 피트 위로 올라가 높은 곳에서 멋진 견해를 목격하는 흥분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높아지면, 산소 부족은 우리가 의식을 잃거나 엔진 고장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면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힘의 거짓말 안으로 더 멀리 올라갈수록, 우리가 지구로 추락할 때에 더 높은 충격 속도를 가집니다. 듀라셀 나무의 저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당신이 한번 그 과실을 맛보고 나면 그것에 오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으며 최종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 세계적인 장애의 주요 원인"¹⁵ 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듀라셀 나무의 과실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높이로 오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먹을수록 오르고 싶은 욕망은 커지고 우리가 추락을 할 확실성도 높아집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까? 몇 개 더 가져가실 수 있나요?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¹⁴ Powered paragliding, also known as paramotoring or PPG, is a form of ultralight aviation where the pilot wears a motor on his back (a paramotor) which provides enough thrust to take off using a paraglider. It can be launched in still air, and on level ground, by the pilot alone – no assistance is required. Wikipedia. 파워 패러글라이딩(PPG)/ 위키백과.

¹⁵ http://www.who.int/mental_health/management/depression/en/

다음 레벨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의존의 함의를 살펴봤지만, 영적, 도덕적 의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전적인 쟁점이라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거친 놀이 기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1 요한 4:8. 이것은 하느님이 사랑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을 희망의 하느님으로 지칭한다. 로마인 15:13 이 아이디어는 갈라디아서에서 크게 확장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이 텍스트의 함축은 숨 막힐 정도로 놀랍습니다. 잠깐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영을 가짐으로써 비롯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그리고 기타 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호수 옆

공원을 걷고 있을 때, 나는 이 성경적 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어느 어머니가 그녀의 딸이 탄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것을 갑자기 눈치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함께 웃고 있었고 확실히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 경험했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딸에게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을 선택한 그 어머니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실제로 전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녀가 하나님의 성령에 응답하고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급진적으로 들리시나요? 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세미나에서 설교하거나 연설할 때 이 아이디어를 여러 번 제시했으며 청중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내가 인류의 근본을 막 공격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불러왔던 수백만 곡들의 사랑 노래들을 위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그 결혼식 제단에서의 수 십억 개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용적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지 않고서는 그러한 약속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패러글라이더에 넣어 봅시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탈락’ 하며 땅에 추락하는 걸까요? 사랑이 우리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종 아침에 깨어날 수 있고 그들 파트너와의 사랑에서 ‘느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관계가 그들에게 더 이상 옳은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종종 그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듀라셀 신용카드가 한도액에 도달했고 이제 지금은 결제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의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의 맹세를 진정으로 의미했던 그 성실한 남자는 어떡하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는 자신이 다른 여자에 끌리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느끼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의 성실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는 그 후 파트너로부터 손을 떼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죄악감으로 인해 그가 여전히 사랑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슴속에서 사랑에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패러 글라이더는 정지되고 그가 출발했던 곳으로부터 지면으로 충돌해왔고 그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결혼생활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요?

결혼생활이 더 이상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은 오직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기원되었으며 그것을 하느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파트너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주시라고 하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약속한 대로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14:13-14

3.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우리는 무모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로렐의 수축은 지속적인 패턴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붙잡히는 것이 싫어서 서둘러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모두 매우 새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곧 우리는 첫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 병동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갔고 간호사는 우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산책을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게 우리의 열정을 꺾어버렸습니다. 45 분 후에 우리는 돌아왔고 이제 로렐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30 분, 우리는 바로 진통의 중간에 착륙했습니다. 네, 그걸 묘사할 다른 단어는 없습니다, 노동, 힘든 노동. 우리는 태아기 수업에서의 모든 기법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지만 집중해서 머물기란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수축들은 마치 정면에서 오는 화물열차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한 가지를

대처하자마자 이어서 다음 것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1 시간 후,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아들 마이클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출산한 직후에 로렐과 저의 정말 흥미로운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놀랍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치 하루의 일과인 것처럼 그저 그곳에 빛을 발하며 앉아 있고 나는 마치 쓰러질 듯 보이는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여자다움에 대해 심오한 새로운 존경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출산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임을 필히 당신 숙녀분들께 말씀드려야겠군요.

당신 웃음이 그칠 때 내 요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 속에서 지켜본다는 감정적 스트레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우리 남성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답도 없었고 아팠습니다. 저는 단지 기도드렸고 "하나님, 이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나 지금 당장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들을 처음으로 안고 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뒤돌아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품고 계속해서 내려다보면서 나는 이 깊은 두려움의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제 것과 동일한 본성으로 각인되어 그가 권위에 도전하는 본성, 순종보다는 반란에 자연스레 이끌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의지를 지도하고 진정한 사랑·친절·사심·순종을 훈육 분야에서 그를 훈련을 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그가 내 친구가 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와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저 바로 그곳에서 기도드려, "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아들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친해지길 바라고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강렬함은 내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주 느끼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삶의 혼잡과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와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의 마음은 내 아들의 탄생으로 되돌아갔고 나는 그와 결단코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강렬한 욕망과 그가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고 조용함 속에서 아직 마음속 깊이 있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너에 대한 내 마음이 바로 그거야."라고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고, 나는 받아들일 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내가 했던 짓과 많은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 싸웠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죄가 용서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대해 느끼는 방식을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외쳤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매우 사실적인 의미에서 저는 그의 팔에 안겨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아프게 하고, 그분은 그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험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특권들이 내 마음의 차원에서 저에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후 머지않아 저는 성경의 어느 몇몇 통로로 인도되었으며 정말로 그것이 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고 하느님을 더더욱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텍스트의 중요성이 당신의 가슴속에 불타올라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매우 선명한 창이 있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앳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 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7)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어 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 12:6,7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왕국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에서 사람들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셈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그것들을 어떤 가치가 있게 하고, 또 무엇이 그들을 귀중하게 만드는지요? 만약 이러한 사안들이 당신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 텍스트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자아 가치성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지 않은 그 누구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새 두 마리의 가치를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 참새들은 거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에 의해 그들 중의 한마리도 잊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점은 하나님께서 참새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이 원리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너희의 머리카락들 까지도 모두 세워 두고 계신다." 만약 그것이 "솔직하고, 가깝고, 그리고 개인적인"것이 아니라면, 그러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싶어 그것들은 심지어 머리에 머리카락 수까지 모니터링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가치가 있다." 당신은 어떻게 가치와 의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애정을 기울여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을 단순히 깨닫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쏟아 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풍부한 선물을, 우리의 만족을 위한 재능과 능력, 다른 이를 위한 유쾌함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의미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가치와 우울증의 노예 왕국을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그걸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있는 동안,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지요?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 40:5

만약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스러운 생각들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들과 생각들이 선언되거나 변호가 매겨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신념만큼이나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소식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유혹에 사로잡힐 때는
언제라도 그저 참새를 보고 믿으십시오!

4 장 . 패밀리 왕국

따뜻하고 습한 날입니다. 축제 분위기가 방안에 만연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주방에서 흘러나와 미뢰에(味蕾) 진정한 대접을 약속합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선물은 사랑이 어우러진 흥분과 놀라움의 분위기 속에서 교환됩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간식을 탐닉하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우리의 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가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러 갔을 때 우리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시간,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접속하는 것과 선물을 공유하는 시간; 함께하기 위한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확대 되어가는 우울증과 무가치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까운 가족의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곳,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단순히 다 함께 인생을 나누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그림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애하는 하나님", 혹은 "당신의 성스러운 폐하", 혹은 "친애하는 왕" 이와 같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첫 참조점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가족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명백해 보이지만, 가족 왕국이 갖는 함축(含蓄) 의미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러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3:17 입니다. 태초의 여명부터 예수님의 침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상속받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은 홍해를 열게 한 여호와이셨고 그분은 시나이산에서 천둥을 치는 여호와이셨고, 그분은 조슈아를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이셨습니다. 1 고린도전서 10:1-4. 그리스도의 침례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 엠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매우 의미심장하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의 핵심 본성을 제시하시어 나타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소개하실 수 있었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 이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는 '이는 너희 왕이니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왕이나 통치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관점에서 그분 아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술을 분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1. 이는 내 아들이요

= 정체성

2.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와 가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우리의 성공적인 실적과 성취에 의해 의의와 가치가 결정되는 사탄의 왕국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감각의 가치관을 제공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 영원하고 결코 – 변하지 않으며 영속적입니다.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그 관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우리의 가치는 안전합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들의 가치는 2001년 9월 11일 이후의 주식 시장과 비슷할 정도로 여겨집니다. – 극도로 급변할 것 같고, 전적으로 불안정해서,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격려와 지원을 구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현자는 모래를 옮기기보다는 오히려 바위 위에다 그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절망과 낙담 무가치함과 죽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보호하는 법을 그분의 왕국의 심장부에 봉안해 두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유형의 관계를 다룹니다.: 우리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서 형제자매로서 우리 각자에게 맺어 주신 관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39) 둘째는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40)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2:37-40

이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당신 자신의-가치를 잃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내부에서 십계명은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관계를 단교하고 싶다면,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할 때, 죽음은 당신을 감싸 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성명서에는 자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성경은 요한 일서 3 : 4 에서 율법을 어긴다고 정의하고있습니다)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파괴합니다. 정체성과 가치가

사라지면 영혼은 죽음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울증과 자살이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유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 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강탈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하나님의 왕국은 가족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3. 우리의 정체성과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4.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간의 관계에 기반한 관계적인 왕국입니다.
5. 이러한 관계는 십계명으로 보호됩니다.
6. 계명을 어기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파괴합니다.

5. 가족의 위기

나는 그가 모종의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는 것을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 아래의 처짐은 정상으로 보이게끔하는 그의 용감한 시도를 배신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아내와 저는 별거하고 있어요."라고 그가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라고 그는 후회에 빠져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 그는 불쑥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날 죽일 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단지 그

자신을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코멘트는 "나는 다만 제가 더는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였습니다.

별거와 이혼이라는 복잡한 우여곡절의 땅에 다녀온 사람들만이 그 말의 배후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본의 아닌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 분노, 비통은 종종 파트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되어 왔습니다.¹⁶ 이혼의 파괴적인 현실은 단순히 자산의 분배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당신의 정체성 전체를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¹⁷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아이들입니다. 단순히 사건 당시가 아니라 평생 동안 그들의 나머지 생애의 평생 아이의 심장을 스쳐 지나가는 파괴적인 감정의 범위는 결코 충분히 계산될 수 없습니다.

짐 콘웨이 (Jim Conway) 씨는 이혼의 자녀였던 수백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들이 느꼈던 감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습니다.

불행함	72%
무력함을 느꼈다	65%
외로움을 느꼈다	61%
두려웠다	52%
화가 났다	50%

¹⁶ 넬리 졸라 & 레나타 싱어, 이혼의 땅에서 온 실화/ (Pan Macmillan, Sydney, 1995) p 2.

¹⁷ 동일 서 Ibid.

버려졌다고 느꼈다	48%
개인적으로 거절 당했다고 느꼈다	40%
무가치한 느낌이었다	30%

어렸을 적에 이혼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성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남겼습니다.

끊임없이 승인을 구함	58%
그들의 과거의 일부를 차단	54%
그들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	53%
그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김	47%
그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과잉 반응	42%
여전히 인간관계에 곤란한 문제가 있음	40% ¹⁸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가요? 말라기 2:16.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든 상관없이, 누가 누구를 저버리든 간에 관계없이 가족 관계의 손실은 모든 당사자에게 파괴적입니다.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승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늘 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분이 사랑하는 첫 번째 창조된 아들이 그분에게 맞서 등을 돌렸을 때 위기로 인해 분열되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 : 7 에서 "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¹⁸ 콘웨이 (Conway, p 31)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두 왕과 그들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가족을 찢어 해체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처음 만드시고 그의 새 아들을 소중하게 껴안아 주셨을 때를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자체와 영혼을 이 천사와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고 그에게 가족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자녀는 분노와 반역의 말을 뱉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만과 거짓말의 그림자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많은 다른 자녀들의 마음을 독살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슬픔이 상상되십니까? 완벽하게 창조된 루시퍼는 이제 증오심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 8:44)에서 처음부터 사탄이 살인자라는 것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는 영원의 하나님의 아들을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느낌의 현실은 사탄이 예수님 죽이기를 바랐던 갈보리의 십자가에 전시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아들 루시퍼에게서 느끼셨던 상실감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심히 충격을 받고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울더라. 왕이 올라가면서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나를 죽게 하셨더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더라. 사무엘기 하 -18:33

다윗의 아름답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왕국을 빼앗으려 했으나, 다윗의 군대가 그의 아들의 군대를 물리치고 압살롬은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기뻐하는 대신에 반역한 아들을 잃은 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이 찢겨 나갈 때는 승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로 묶여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루시퍼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살했으며 예기치 않은 어두운 감정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루시퍼의 그 반란 이전에, 만약 당신이 "누구세요?"라고 그에게 물어봤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루시퍼가 그의 아버지를 거부했었을 때, 만약 당신이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루시퍼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더는 정체성이 없고 그는 그것을 파괴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가 자신을 위해 창조하려 했던 정체성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의 하늘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를 끊으면서 경험하며 느꼈었던 그 허망함과 상실감은 결코 메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소원했지만, 그의 자존심이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뻔뻔스러운 배은망덕과 공개적인 반란 이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루시퍼 이제 '반대자'라는 뜻으로 사탄은 홀로 서 있습니다. 그를 붙잡아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부모의 모습도 없고,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사탄은 무가치한 모든 감정에 의해서 활기를 띠니다: 불안정, 두려움, 공허함, 질투, 자존심, 자기 합리화, 오만, 격분, 분노, 그리고 통제 정신입니다.

사탄은 이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정의해야 했고, 그 공허함, 그 무가치함, 그가 내면에서 느꼈던 그 허전함을 어떻게든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느끼는 여느 아이들처럼, 사탄은 불안정, 두려움, 광기,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승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를 갈망하고, 그 공허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의 도착된 본성은 그 어떤 것이든지 -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무가치함을 빼앗기 위해 - 숭배되고, 흠모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 그 무엇이든지. 이 슬픈 상태는 놀랍게도 시티오브 엔젤이라고 불리는 영화의 노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절

당신의 모든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는 건 두 번째의 기회를

위해서예요

상황이 좋아질 기회를 위해서 말이에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는 언제나 이유가 생기고

하루가 저물 때 썸이면 힘들어지죠

물두하지 않거나 아름답게 놓아주는게 필요하죠

기억이 나의 혈관으로부터 스며 나와요

오, 절 공허하고 무중력 한 존재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아마도 오늘 밤 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2 절

곧은 길만을 고집하는 삶이 지겨워서 조금씩 다른 길로 접어들 때마다

당신의 등 뒤엔 탐욕의 무리와 도둑들이 노리고 있네요

폭풍은 가라앉질 않고 당신은 거짓말을 쌓아나가는군요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망쳐요

이 달콤한 광기에 빠져있을 땐 더 믿기 쉽죠

오, 이 영광스러운 애수는 저를 무릎 꿇게 하네요.

사탄은 가치의 근간으로 관계를 거절했을 때부터, 그는 관계를 바탕으로 왕국을 결코 설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한 가지 옵션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기 보다는 당신이 하는 일에 의해 알려지십시오. 이 왕국의 모든 생명과 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면 이 왕국은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면의 힘'의 원리를 창안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힘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권력과 퍼포먼스와 쾌락 추구의 왕국입니다. 그것의 중심 주제는 그 누구에 대한 책임도 없는 것이고, 당신에게 유용할 사람들만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당연히 비운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탱하는 생명력은 생물적 존재에 속해 있으며 언젠가는 그분을 거절하는 죄책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고집스럽게 인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오는 고통과 손실을 앗아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운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담의 진실을 배웁니다. "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

우리가 이 전후 관계의 범위 안에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이 천국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좌절시키려 애를 쓸 때 외견상으로는 교활하고 영리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점점 넓어지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허와 불안감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 지상의 지옥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경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누군가와 정말 확고한 우정을 진전시켜왔습니다. 당신이 함께 시간을 정말로 즐기고 보내기 위해 오는 누군가. 갑자기 당신은 당신의 친구가 약간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고 스스로 단지 상상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진짜 쟁점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점점 쌓여져가고, 마침내 당신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명백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 후,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대항하여 당신의 친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당신을 당황스럽게 하여 그만두는 방식으로 당신의 행위를 해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확실히 이성이 우세할 것이고 당신은 이 오해를 재빨리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고자 할 때, 당신은 뻔뻔스럽게도 은폐를 조작하려 한다는 부끄러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몇 가지의 감정 중 하나가 당신을 추월할 수도 있으며: 상처, 고통, 분노 또는 심지어는 파괴까지도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다른 누군가를 쉽게 믿어 버렸습니다, 당신을 지키기는커녕! 당신의 분출 또는 침묵(어느 것이든 적용)은 당신의 '친구'에게 그들이 옳았고 당신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상처에 모욕감을 더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이 마지막 두 단락을 읽다 보면, 이 시나리오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표면화되었을지도 모르며, 그것은 여기 지구상의 시간 거의 먼동이 틀 무렵의 시작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사건적 글을 나 자신이 직접 쓰며 회상할 때에도 나는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왜?" 라고 묻습니다.

저는 우리들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의 거부로 인한 상흔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저는 그것들은 아담과 이브가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직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해하는데 작은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낯선 사람의 말이 가장 친한 친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종종 그분의 딸 이브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갑자기 '낮선 사람'에게 이끌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투자하신 모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무수한 사랑의 증표를 그녀에게 보여 주신다면, 그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장과 사랑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뱀을 경유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일까요? 왜 하느님께서 개입하여 천사를 보내 그들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이 시점에서 답해야 할 "왜"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다룰 시간이나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그분과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다루어질 수 없지만, 가장 중심적 대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선택권이 주는 사람에게 혹독한 상처를 줄 때 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마다 매번 개입하는 습관을 지니셨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지시와 교정의 시간도 있지만, 선택권자의 침묵이 그가 내뿜은 '사랑해'의 모든 표현을 검증하는 시기가 오는데, 선택권 없는 사랑은 사랑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상대하는 동안에 씨름하는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지시와 방향 지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불리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거절의 고통을 스스로 구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슬퍼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허용합니까? 어떤 부모에게도 힘든 선택입니다.

사랑이라는 힘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중한 딸 이브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아담을 파멸시키는 기구가 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지금쯤이면 하느님의 마음속 고통의 수준은 틀림없이 믿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딸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아담을 구하기 위해 개입을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신성한 사랑은 깊이 슬퍼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며, 그분이 진정으로 자유와 자유로운 선택의 신이심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합니다. 그분은 아담 자신은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테스트에 관해 이야기할 때, 아담과 이브가 천국 클럽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천국의 안전에서 테스트 진행 절차를 부주의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여흥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만큼이나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함락하게 되면, 그때에 그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세상 창조¹⁹ 이전에 확정된 서약을 적용해야 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자신이 떠안고 그들의 생명보다는 오히려 그분 자신의 생명을 분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이브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아담이 하나님께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요? 이 사랑의 시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본래 부모를 대하는데 사리사욕에 의해 움직이셨다는 잘못된 생각을 영원히 제거할 것입니다.

¹⁹ 베드로 전서 1:20; 계시록 13:8.

우리는 1 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을 때 포용하고 있던 철학에 대해 논의했고, 또 우리는 이전 장에서 사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념을 조합하도록 이끄는 비극적인 감정의 혼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달성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위액이 열매를 소화시키는 동안조차도, 무가치함과 죄책감의 역겨운 구름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감싸 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관계를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듀라셀 나무의 저주는 음흉한 작업을 시작했고, 아담과 이브는 짧은 시간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그것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호의를 표하기 위해 자체를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깨뜨렸고 오직 하느님만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되새겨 보더라도 자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와의 관계를 위반할 경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권력은 위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한 당사자가 그 관계에서 모든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2 장에서 들여다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아담과 이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이제 그 근원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들의 추론력은 더는 이타적이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탄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짓말의 가면을 벗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 이론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은 죽을 자격이 있고 그들은 무가치한 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아직도 - 우리의 정체성의 감각을 파괴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과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함으로써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거짓말을 믿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아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낯선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시지만, 그들에게 한때는 우주에서 가장 달콤하다고 여겨졌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그들을 공포와 자포자기 속으로 숨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프로그래밍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당신이 아이와 개발한 행복한 의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오후 당신의 아이는 현관 밖으로 달려 나와 "아빠, 아빠"를 부르고 나서는 부드러운 포옹으로 당신의 팔 안으로 몸을 던집니다.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당신은 사랑하는 아이가 당신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황한 당신은 집 현관에 들어서자, 숨으려고 정원 안으로 재빠르게 달러가는 작은 발걸음 소리를 동반한 공포의 비명을 듣습니다. 뭔가가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사랑이 있었던 곳에는 지금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손짓해서 부르는 목소리에 그분의

자녀들이 도망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최악이 우리에게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관대하며, 인내심 크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계십니다. 그들이 또 하나의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지금 그분은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접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표명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제 사악한 빛 속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지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일 아무런 안정도 가치도 없습니다. 죄책감과 불확실의 정신에 통제되어 그들은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추론할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내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합니다. 하느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이 그 쟁점에 직면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아담? 당신의 정체성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육체적인 것은 항상 정신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담과 이브의 육체적인 은신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폐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 자신은 너무 무섭게 보이는 진실을 직면해야 하는 것을 피하고자 사기와 속임수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문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하시며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에게 축복 된 해결책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응합니다. 이 고백은 창세기 2:25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흥미롭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은 실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추론은 아담이 이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buwsh)는 또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며 실망했다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고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의 고통의 강도에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려고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 그가 말했던 거짓말의 선동자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너를 나에게서 달아나도록 초래하고 있느냐? "너와 나 사이에 누가 끼어 들어왔느냐?"

아담에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것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요를 요구하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제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복수심에 찬 것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 개와 두 개를 함께 그의 마음속에 넣어 64를 얻습니다. 아담은 만약 그가 '예'라고 말할 경우, 그가 가혹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는 하나님이 복수심에 불타

있다.라고 거짓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나무에서 먹었던 한 번의 거짓말과 그 거짓말로 인한 거짓으로 두 번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믿고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그는 비난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명하게 유죄이지만, 그는 이브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녀와 마주하겠다고 다짐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 남자에 대한 이브의 충격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 장애물에서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타인을 돕고 지지하기 위해 사심 없이 그의 자신을 내어주는 영웅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행되는 과정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담의 반응은 그의 죄의식과 불안감에 의해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릇된 개념과 결합되어, 그의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뒤섞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더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옹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철학을 그는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최악의 큰 비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담에게 그가 아버지에 대해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무가치하고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담이 객관적으로 추론할 힘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지혜의 유일한 근원이신데 아담은 그 근원으로부터 그 자신 스스로를 단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성을 갖고 있었을 때에도, 그의 이성이 진실과 유사한 것을 맹렬히 거부하는 죄책감과 자부심의 혼합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을 위해 사랑으로 행해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불안이 그의 이성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 그 자신들이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그들은 너무나 절망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거의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저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영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결국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절박한 동반자 관계에서 사악한 천사들과 합류하도록 이끄는 씨앗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나 그분의 왕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이걸 조금 지나쳤어요. 저는 그들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싫어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모든 선량함과 사랑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점을 잊으시면 우리는 진실하게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매우 명확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8:7 . 개역한글:NASB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10,11
개역한글:NIV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9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반항적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 경험 속에서,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공유했던 많은 사람의 경험 속에서 이 진리에 대해 강력한 저항 정신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증오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 저항 정신은 아담이 자신의 실패로 인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이브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냈던 저항의 직접적인 반항입니다. 아담의 불안은 우리들의 유전이며 우리는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상으로 진실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생각에

저항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 자신이 안전하다면, 이 진술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의 불안정과 공허함은 우리의 유전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전부이며, 그 이상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에게 적대적이라는 현실을 포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즐거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맥락에서는 당신이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헤아릴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악한 본성이 튀어나와 감정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때렸을 때 당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 있지만 저는 저 자신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을 위해 이것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로 다시 되돌아 오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타파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과 그들 자녀들의 회복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1. 인류에게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하는 수단은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제공합니다.
2. 그들이 그분의 성품과 왕국에 대해 틀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든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3. 그들의 죄의식과 불안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4. 그들의 목적의식과 그들의 존재 이유 또는 그들의 운명을 복원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5. 위의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 자신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6.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정의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반란을 무시할 수 없으시고 괜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는 동안 그들이 한 선택의 완전한 결과가 그들에게 떨어질 것을 허용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한 일의 오류를 인식하기 시작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만약 그들이 이 시점에 오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미 단호히 결정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 그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포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7. 천국의 라이프라인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가장 높은 사랑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리스인들은 아드메토스와 알케스티스의 (Admetus Alcestis)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²⁰ 사도 바울은 로마서 속에서 이 이야기를 던지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7

아드메토스 왕은 그의 환대와 정의로 유명해서 그의 왕국 전체에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 아폴로는 그의 아버지 주피터에 의해

²⁰ <https://en.wikipedia.org/wiki/Admetus>

올림포스 산에서 쫓겨났고 그는 그의 신성을 한쪽으로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노예로서 인간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지상에 왔을 때 아드메토스 왕은 가난한 거지로 있던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를 먹여 주고 그의 양 떼의 목자로 삼았으며 그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12 개월 후 아폴론은 다시 그의 신성한 상태로 탈바꿈되어 돌아와 아드메토스가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에게 " 만약 앞으로 당신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나에게 그냥 물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폴론은 아드메토스에게로 돌아와 저승의 신 하데스가 곧 그를 요구하러 오리라는 것을 통지했습니다. 아폴론은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포네와 거래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 줄 수 있는 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면, 그는 죽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드메토스는 그의 부모를 찾아가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기꺼이 그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지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이 너는 선하고 친절한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더 사랑한다. 우린 너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단다." 왕은 그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영역 전체를 샅샅이 뒤져 보았지만, 그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드메토스는 자신의 운명을 체념했고, 그 순간 그의 아내 알케스티스는 아폴로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폴로여, 당신은 내 남편을 축복해 주었고, 그의 명성과 재산을 우리 전체 왕국에서 열 배나 늘렸습니다. 아드메토스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의

사람들은 그를 매우 필요로 하므로 그는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죽을 테니 그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온 나라는 어진 왕의 착한 아내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녀는 선한 왕의 백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왕이 살 수 있도록 죽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페르세포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가 남편에게 보여준 충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메토스와 알케스티스가 나이가 들면서 아폴로 역시 그들의 충실함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였으며 노년에 죽음이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탄성을 했습니다. " 남자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 그곳에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과 연결하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요한복음- 15:13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사랑의 한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는 인간 사랑의 한계에 대한 이 인간의 이야기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10)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7-10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멍들게 하심을 허용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적들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연민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신성한 사랑입니다.²¹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논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만약 인류가 그들에게 대적하는 선택을 한다면 무언가가 일어날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²²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아담과 이브의 대속자가 되도록 허용하시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허락하실까요? 그분은 그의 아들이 무덤까지 가져가는 그들의 무가치함과 절망적인 이것을 스스로 짊어지도록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그의 완전한 정체성 상실과 주님의

²¹ 자세한 내용은 로버트 윌랜드씨의 <http://fatheroflove.info/download/view/863> 참조하십시오

²² 스가랴 6:13

아들로서의 그의 신분 관계의 단절로 인한 가슴 아픈 마음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의 찢어지는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 글들을 집필하는 동안, 제 아들은 평화롭게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를 향한 기쁨의 감각과 사랑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두는 것을 상상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제가 옹호하는 모든 것과 지금 저를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위해서 자초한 자상적 사형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그 생각들을 그냥 섣다운 시키고 싶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심지어 저 스스로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대처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이 나를 붕괴시킬 것 같은 원인이 될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분의 딜레마로 돌아가서 저는 무감각을 느낍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적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 희생을 통해 생명을 제안받아 온 제가 그런 사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항상 저를 잠시 멈추게 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저는 나중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일을 해주셨다는 것에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이 지식을

그분의 아들과 공유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일단 죄가 우주를 감염시켰을 때 그분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이 지상에 오셨을 때 무엇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절, 구타, 비웃음, 증오, 저주와 욕설, 십자가 위에서의 별거벗음과 암흑, 수십억 영혼의 무가치함이 그분에게 쌓여 있었고, 그리고 수백 세대에 걸쳐 축적된 죄책감과 비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의 모든 것을 보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²³ 하나님의 아드님은 마지못해 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운명이 될 기쁨의 충만함으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갈망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신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누구와 비교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말이 그분을 찬양하기에 충분할까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오류로부터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시스템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장에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보고, 사탄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말을 감지하여 폭로하고 거절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정신적 정복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도덕적 나침반이 필요했습니다.

²³ 시편 40:8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 장 15 절에 아담과 이브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15

이 구절은 약속과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녀에게서 나올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온 인류 가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개심이라는 단어는 증오 또는 적을 의미합니다.²⁴ 하나님께서는 악을 증오하고 선량함과 진리를 갈망하는 인류 가족의 마음에 무언가를 넣어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이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인류 가족을 화해시키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 또는 그 후손 사이에 실재하는 증오심에 의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이 악에 대한 증오를 은혜 또는 권능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²⁴ Vines Expository Dictionary- 엔머티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로마서- 5:15 개역한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배치된 이 적대감에서 직접 나옵니다. 이 동일한 선물은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생명의 선물을 제공합니다.²⁵ 바울 또한 로마서의 같은 장에서 이 사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로마서- 5:18

이것은 평화와 기쁨을 척도를 넘어 가져올 수 있는 믿기지 않는 진실입니다. 위의 사실은 당신이 취하는 모든 호흡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희생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을 숨 쉬게 하고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언급하는 비자발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기능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²⁵ 우리가 여기서 생명에 대해 참조할 때, 우리는 보호관찰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지 영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대한 진실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28)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27,28 (일부분)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개의 덕목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지탱되고 있음으로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서 먼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진실은 그분은 결코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은 단지 당신의 맥박을 느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과 악에 저항하고자 하는 소망을 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덧붙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못된 짓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생각했거나 그것을 하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며 곧 악에 대적하는 적대감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행사하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이 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 한 자에게도 내리게 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²⁶ 사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거나 당신의

²⁶ 마태복음 5:48

소유물을 빼앗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에 사악한 생각을 몇 번이나 배치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마음에 배치해 주신 적의가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 충동을 거부하고 계속 악을 범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 적대감이 거기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마음속에 배치된 사악한 생각들을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입니까! 한 인류로서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고 사탄의 악한 길을 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돕는 것을 넘어 비참함과 완전한 파괴로 운명이 멸망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애로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신 가장 소중한 것 - 즉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 가족 중 한 분이 될 것이고 우리 중 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남은 영원을 위한 공부와 묵상의 중심적인 주제가 될 희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해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의 영은 지금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 대한 진리를 믿도록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신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음을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하신지요?

8. 두 왕국의 비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분리된 그리고 뚜렷한 왕국; 즉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과 사탄의 왕국을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둘 다 모두 제시된 것을 요약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국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 1. 정부** :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왕국이 통치되는 구조.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독재입니다.
- 2. 통화** : 가치 시스템에 의해서 왕국의 시민이 그들의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시민권: 누군가가 어떻게 그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두 왕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정 부	가 족	최강자
통 화	사랑 / 자비 / 자유 선택 / 하나님에 대한 믿음	힘 / 자산 / 완력 / 자아에 대한 믿음
시 민 권	하나님의 자녀	실적과 업적

하나님의 정부는 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장은 하나님 아버지 이십니다. 지도자와 시민들의 관계는 밀접하고 친밀합니다. 반면 사탄의 왕국은 자신이 최강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가장 강한 그런 자들이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에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광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가장 강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 관계의 강도를 바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늘나라의 화폐입니다. 시민은 그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며 그들의 평가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의제 없이 천진난만하게 서로의 동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야망이며²⁷,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성품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주는 활동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분에 대해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민들은 하나님에 대해 직접 또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관찰하고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는 것도 또한 이 왕국에 있는 것의 기쁨으로 가득 찬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기쁨에 찬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숭배합니다.²⁸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탄의 왕국은 자산을 거래합니다. 가치는 우리가 성취한 것에서 비롯되므로 자산 축적은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물질적 정신적 또는 관계적일 수 있습니다. 집이 크면 클수록 당신이 소유한 물건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가치를 가집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직위가 높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가치를 소유합니다. 당신과 함께 결부된 사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신의 대의에 아주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사람들이 그들 내면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하는 것은

²⁷ 빌립보서 3: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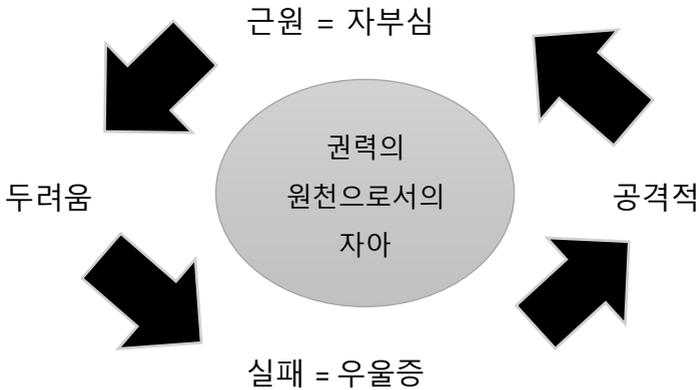
²⁸ 요한계시록 14:6,7 · 4:1-9

자주 있는 흔한 일입니다. 그것은 판매원들에 의해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도록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것들이 실패할 때 당신은 무력, 공갈,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이처럼 수많은 관계가 고통과 함께 비애로 가득 차 있는 이유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함께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한 또 다른 하나의 대조, 그것은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당신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시민으로 간주합니다. 삶의 사정이나 어려움과 관계없이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민권은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사탄의 왕국에서는 당신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시민으로 간주합니다. 성취와 게으름 모두 당신이 실행과 이걸 하는 데에 집중하는 한 당신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왕국에서는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 그날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이 달성하려 하는 노력을 못 하게 저해한다면, 당신은 좌절하고 화를 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 도달하여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역시 공허함을 느끼며 우울해지거나 더 단호해집니다. 인생은 자존심과 무가치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순환입니다. 당신이 달성하면 당신은 자랑스러워지게 되고, 실패하면 무가치하다고 느껴집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의 삶은 성취하고자 하는 동요된 결심이거나, 그와 반대로 당신이 달성해서

이루어낸 것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거나 왕국을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는 순환입니다.

사탄 왕국에서의 감정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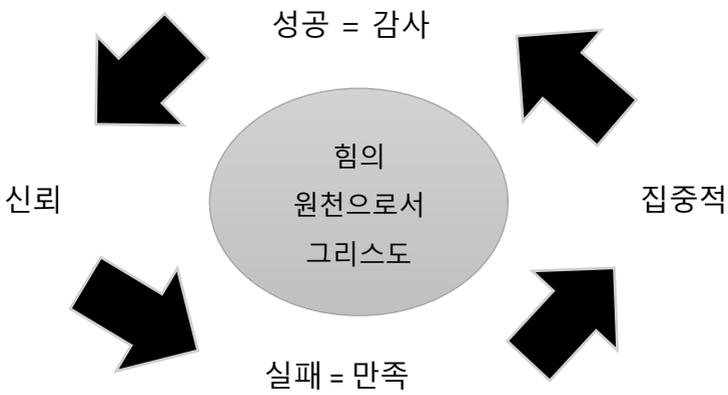


이 사이클은 우리 자신 속에 힘이 있다고 믿는 단순한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체 동력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 받지 않고 누구에게서도 가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배양하고 생산해내야만 합니다. 모든 성공은 우리를 검증하고 모든 실패는 우리를 몰아세우며 더 무(無)에 가깝게 만듭니다.

제가 맨 처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가슴속의 갈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지적했을 때 너무나 큰 축복을 느꼈지만, 하지만 그들이 줄을 지어 밖으로 나갈 때 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문가에 서서, 나는 그들이 내가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고 내가 한 일에 대해 검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많은 승인을 원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제가 말을 잘한다고 말을 해올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것은 종종 어색해 보였고 때로는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과는 별개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증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도 없이 성공하고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느님 왕국에서의 감정 사이클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업적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성취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직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완전한 가능성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당신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두 왕국의 본질의 윤곽을 간략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이 왕국들이 인류 역사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 둘 사이에서 살면서 직면하는 투쟁을 추적할 것입니다. 두 왕국 모두 자유를 제공하고 두 왕국 모두 다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어떤 왕국이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의의와 가치를 깊이 느끼게하고 남겨줄까요?

9. 바빌론의 심장

"우리 어디에서 잘못된 거지?" 지금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가슴 아픈 외침입니다. "우리는 좋은 가족 형편이었고, 그는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마약 밀매, 절도 및 살인 혐의로 방금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필사적으로 구하면서 아버지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 가슴 아픈 외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 번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항과 사악한 삶에 빠진 아이를 가진 수치심과 고통과 함께 사는 부모들입니다. 이 비통한 외침의 근원은 우리의 첫 부모와 그들의 첫아들 가인의 비극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담과 이브가 어린 가인을 처음 그들의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열매는 이제 그들의 안에 있게 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브는 그녀의 새 소중한 꾸러미를 꺼안고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²⁹ 이브는 가인 그가 창세기 3 장 15 절에서 언급된 그 약속된 씨앗이 되어 모든 나라에 치유와 축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이브의 쓰라린 아이러니는 가인의 유산이 명의 사람들에게 비참함과 파괴와 죽음을 안겨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그들 자신만의 조건으로 그들의 영적인 경험을 지휘하는 숭배자의 클래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룹이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중에 바빌론이라는 코드네임을 붙이게 될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 무리의 사람들 뒤에 숨겨진 원동력과 그것이 당신과 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아빠, 왜 우리가 그 불쌍한 순진한 양을 죽여야 하는 거죠" 어린 양을 죽인 것은 인간 가족 앞에 그들의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의 현실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실체와 회개할 필요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치르셨던 대가를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믿기지 않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제공되었습니까. 그것은 제물로서 바쳐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가리켰던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를 바라는 마음에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또한 에덴동산에서의 타락

²⁹ 창세기 4:1

이래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행한 짓에 대한 수치심을 거꾸로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인간의 배은망덕함과 이기심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역에 참여하는 것은 항상 착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얼굴을 응시하고 그 침묵의 고통을 보는 것은 이기심과 자기 의지의 대가가 확실하게 납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어린 양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따른 영혼의 고뇌와 함께 항상 희망이 뒤섞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대응은 그러한 분리가 애당초 일어났음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기원을 다시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분의 분노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십자가를 빛에서 어둠으로 변형시켰거나 실제로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조작의 상징을 제시하면서 희망의 상징으로 더 나쁘게 묘사됩니다.

수년 동안 그의 부모가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을 지켜본 후, 그들의 눈물과 비통이 결합하여 다가올 씨에 대한 희망, 인내 그리고 자신감과 결합되는 것을 보고, 가인은 더 이상의 겸손과 회개의 필요를 참을 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노출해주는 인간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가인은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그의 불안감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던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었던 생득권(장자)의 일부였습니다. 가인에게 어린 양이 그에게 오로지 말하기를 그는 자기

권리로는 하나님을 용납하실 수 없으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못마땅해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가인이 그의 경배로부터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을 제거하는 대담한 단계를 밟도록 장려하였고, 따라서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해 회개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의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가인이 주님께 열매의 제물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³⁰ 우리는 또한 가인이 그의 일의 일환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그의 손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경을 얻으려는 그의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숭배 경험을 겸허한 신앙의 하나에서 자랑스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로, 친밀한 신뢰 관계에서 계약상의 회유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런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섭력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가인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사탄은 어린 양에 의한 죄의 확신으로부터 자신을 풀어준다는 자유를 그에게 약속했지만, 어린 양 가인의 종교를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과 믿음 관계로부터, 그는 그 자신이 고안하여 만든 그만의 신에게 바치는 일련의 실적에 기반을 둔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가인은 듀라셀 나무의 독을 수용하였고, 그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비행을 하였고 그는 처음에 상쾌한 자유감을 경험했지만, 패러글라이딩이 그 한계에 이르러 지면에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³⁰ 창세기- 4:3

제 5 장에서는 우리는 가족 관계의 결렬에서 오는 몇 가지 감정적인 상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요약이 있습니다:

- 끊임없이 승인을 구함
- 그들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
- 그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과잉 반응. 즉, 매우 통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³¹

가인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명된 계획에서 멀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관계는 완전히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이 떨어진 거리는 그의 불안의 불길을 부채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는 그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거나 사탄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것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공허감은 더 커지기만 했고, 자괴감은 곱이 되었습니다. 사탄처럼 가인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에 대한 감각을 대체하려고 몸부림쳤으나 허사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 그리고 그분의 계획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깊은 공허감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의 격동된 감정은 곧 분출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을 숭배하러 온 정해진 희생제물의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어린 양의 헌물은 온 마음을 바치는 불에 의해

³¹ 콘웨이, 31

받아들였지만, 가인의 헌물은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이 가인을 분노케 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죄는 극도로 비논리적입니다. 가인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 끔찍하게 화를 냈습니다.

가게에 가서 빵 한 덩어리를 구울 모든 재료를 얻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게 주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그는 집에 가져갈 명단을 줍니다. 이스트의 냄새를 맡아보고 이스트가 없으면 빵이 더 나올 것이라고 결정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잘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오븐에 넣고 조금만 있으면 당신은 매우 슬픈 납작한 빵 덩어리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화가 나서 가게 주인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빵 만들기 실패에 대해 그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가인이 정확히 하나님께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은 되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가치는 그의 노력과 퍼포먼스에 의해 결정되는 사탄의 왕국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는 인도되고 오류를 수정하는 능력은 급속히 감소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쉽게 자신을 속일 수 있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그는 화가 나게 됩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은 그를 도우려 하시고 바로 잡아 주시고, 그분의 아들의 약속된 선물을 되돌려 주려고 하시지만, 가인은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의 반항 감정은 커지고 어둠의 왕국은 가장 성공적인 인간 실험을 거의 마쳤습니다.

지금쯤 가인의 마음은 사탄이 하늘에서 방출해 놓은 그 감정의 힘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원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조건에 의한 것입니다. 그의 무가치함에 대한 감각은 그가 폭발할 준비가 되어있는 곳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는 수용과 가치에 대한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높은 권력으로부터 승인을 갈망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는 동시에 하나님께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빚지고 있고 어린 양을 통한 그의 사랑스러운 제공에 겸허히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아벨 앞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것에 대해 여전히 불평하는 그는 그와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그의 경배 방법에 대해 호소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와 줄 것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가인이 필요로 했던 전부였습니다. 뭔가가 그의 안에서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의 무가치함에 대한 감각은 그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했고, 그 순간이 오면, 사탄은 완전히 자유로운 엔트리가 주어지고 지배권을 쥐게 됩니다. 사탄은 가인을 그의 동생에 대한 강렬한 증오로 가득 채웠고, 가족 관계는 잊히고, 사탄의 왕국은 이제 완전히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하늘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신성하고 소중한 관계의 최초의 소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위반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이 숨을 헐떡이고, 심지어 사탄과 그의 천사들조차도 생명이 없는 아벨의 형태가 그 피로 땅을 붉게 바꿔놓았을 때 순간적인 무감각을 경험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탄은 이 사건의 공포감을 떨쳐버리고, 그의 노예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가인에게 죄책감을 깊이 압착시켜 넣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용서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광기이며 그의 반역의 길을 따라갈 때 그는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약속하며 우리가 어겼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파멸을 시끄럽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목소리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너무 사악하고 악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 영혼에 속삭이는 것은 그의 목소리입니다 ; 우리가 죽고 싶을 정도로 죄책감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가인은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변호할 수 없었고 사탄은 그를 몰아 부추겨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³² 라고 울부짖게 합니다. 이것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오셨던 것은, 그를 잘라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되찾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가인에게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그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슬프게도 가인은 그런 애절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씨를 뿌렸고, 이제 그는 수확했습니다.

창세기 4 장 11 절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저주의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가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이 단어들은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의 느낌을 줍니다. 이 저주는 천상의 어떤 지팡이를 흔들어 하나님에 의해 적용된 것이 아니라,

³² 창세기- 4:13

저주는 하나님의 가족 왕국에 대한 거부, 친밀한 관계에 대한 거부 속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는 친밀함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고문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길을 택했고 -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항상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친밀감을 원했지만, 그의 무가치함의 거주처인 그의 마음의 비밀 체임버에 결코 사람들을 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의 기량에 맞서는 그의 라이벌을 항상 경계합니다. 여기에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³³ 는 속담의 진실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라고 말합니다.³⁴ 그는 이제 하느님이 그로부터 가까이 계시다는 감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의 죄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차단 했다고 믿는 속에서 ,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그 자신으로부터 차단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승인과 가치에 대한 커다란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위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자신은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건물을 짓고 그가 성취한 것으로부터 그의 가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자신을 에워싸게 할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한 의식에서 차단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거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지구상에 사탄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불안과 무가치함의 모든 징후를 보여주는 한

³³ 이사야 57:20

³⁴ 창세기 4:16

종족의 사람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으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는 별개로 정체성을 끝없이 추구하기 위해 어떤 라이벌에게도 질투심을 품는 통제하는 정신을 개발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위대한 관계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내부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들을 계속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한 그는 그들을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시대를 통해오는 동안, 사탄은 그의 지배하에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감싸 안고 있으면서 그들의 무가치하고 불안정한 혼을 그 자신의 혼에 묶어두고 그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의 심장부 그것이 하는 일에 의해서 정체성과 가치를 추구하고, 그 위협들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 위협을 받을 수 없도록 정황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고문받는 마음을 연구해왔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는 이 마음이 인류 역사를 통해 구체화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2 부. 하나의 운명 - 되찾은 정체성

10 장. 듀라셀의 사슬을 끊다

그들이 서로를 안고 있는 동안 긴 멈춤이 있었습니다. 감정의 강도는 깊지만, 그들은 둘 다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의 날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서로 친밀한 교감을 나누었으며, 이제 그 교감은 곧 스트레스를 받아 마침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인간의 아들과 딸들을 되찾기 위한 그 임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그에 관련된 위험과 대가를 이해하지만, 사랑은 그들을 계속하여 몰아갑니다.

잠시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적인 눈으로 그 사명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조롱, 거부, 증오, 침 뱉음, 발길질, 채찍질과 못질은 모든 것이 창백해지고 천지가 멈추고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것을 지켜보는 그 무서운 순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은 수천 년에 걸친 죄책감과 고통, 반란과 무가치함이 그에게 굴러오는 것을 관찰하고,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아버지의 숨겨진 얼굴의 감각에 의해 마치 찢기고 찢어진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자신을 지켜봅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아들과 함께 계시지만, 우리들의 버림받은 감각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운반하시는 분은 아들이십니다.³⁵

포용은 더욱 조여지는데 -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이 운명에 건네줄 수가 있을까요?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분들은 둘 다 실패의 가능성과 죄의 힘에 의한 영원한 상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최대 라이벌인 사탄이 그를 압도할 기회의 창구를 제공하는 인간 본성을 그분 자신이 스스로 떠맡게 될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보장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위험 요소에 착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심지어 어떻게 그런 숨 막히는 계획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가페적 사랑은 그분들을 쉴 새 없이 몰아가게 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긴 멈춤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 그들은 두 분 다 그 계획을 수행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가장자리로 발걸음을 떼어 마지막으로 애정 어린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그리고 나서 그분은 떠나갑니다.

6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지구상에서 구원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신 것인지 길고도 도전적인 목록을 살펴 보았습니다. 9 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 왕국의 발전과 사탄이 우리들의 무가치한 감각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³⁵ 히브리서 2:9

힘을 깨뜨리시려면 그 무가치함의 감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연결시켜 듀라셀 나무에서 잉태된 거짓 정체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기쁨의 찬가를 부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탄의 깊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혜자들을 낮은 마구간으로 인도한 빛나는 별은 아무런 위안도 부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 고귀한 유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싸움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아이 위에 머물렀던 평화로운 잔잔함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퍼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과 피로 만들어졌지만, 아이에게 깊은 평화가 임하고 있어서 그가 완전히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괴로운 영은 헤롯의 마음에 머물렀고, 우리에게서 어둠의 정신 세계를 휘젓는 혼란으로 들어가는 창구가 주어졌습니다. 헤롯을 통치했던 깊은 불안한 감각은 그로 하여금 하늘 왕국에 대항하는 사탄의 '충격과 경외' 캠페인을 아주 쉽게 미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진짜 콘테스트가 시작되기 전에 그를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왕의 평화로운 자신감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섭리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밝히시고 어둠의 지배자를 폭로하고, 그리고 인간의 육신 속에서, 멸망의 인류를 노예로 만든 불안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한 탈출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다음과 같은 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므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29

사탄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 존엄성과 자신감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조차 경외심을 일으키게 한 집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에 매달렸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죄로 이동시키려는 그의 헛된 노력에 분노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침내, 사탄에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4 천 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성공을 거둔 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속에서 자신감을 가진 인간 정신이라는 견고한 벽으로 돌진합니다. 아들의 신분은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아들의 신분은 인류를 익사시키고 있는 무가치함의 격류에 대항하는 가장 확실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격자 사이의 갈등의 초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사렛 마을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자 소식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선구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갈이 그 천한 목수의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끌과 톱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껴안고 요르단 쪽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시지만, 앞으로 다가올 광야에서의 갈등은 이전에 아무도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게이트는 파열하는 댐처럼 그분을 향하여 방출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무가치함의 완전한 힘에 직면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굳건히 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누군가 처음으로 듀라셀의 사슬을 끊었을 것입니다. 이 승리의 성과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상속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전투는 십자가의 작업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의 무(無)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면, 용서를 제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자나 여자, 또는 어린아이가 그 선물을 포용할 힘이 없다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계시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듀라셀의 무가치함과 무(無)를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하고, 승리의 전리품은 인류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권한을 부여받아 비할 데 없는 십자가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강력한 과시와 무기를 가진 군대의 사용이 아닌, 전투를 위해 그분 아들의 손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오는 적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최고의 무기 - 즉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오는 권한 부여를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시고 비둘기가 내려앉자, 하늘들이 열리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전투에 나가기 위한 아들에게 건네주실 수 있었던 가장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안전한 말씀 속에서,

그는 사악한 적과 싸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결코 깰 수 없었던 죄의 족쇄를 깨뜨릴 것입니다.

이 서술의 의의(意義)는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원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소중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적에게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을 가미했는지, 끈을 부착시킨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일원의 선물은 그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선물,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아들로서 또는 딸로서 확고한 신념의 다리를 건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길은 합법 주의 또는 죄에 대한 허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러한 단어들은 사탄을 격분하게 시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거기 있었으나 지금은 그가 그렇지 않은 뭔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 - 아들! 그것은 그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께 그는 유혹의 공세를 퍼부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 기록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³⁶ 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40 일은 고사하고 압도적인 끊임없는 10 분간의 유혹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4 천 년 동안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시험을 연습해왔고 당신은 예수님이 지옥의 모든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갈등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연이어서 타격을 가하자 그들은 집단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예수에 의해 행해진 영웅적인 입장도 모르고 굳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실패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무(無)함의 사슬에 의해 으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관통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그저 멈춰서 그분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려는 이 강력한 왕자님의 단호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제 마음은 단지 감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불난 집을 뚫고서 달려가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정신적으로 사탄에게 짓눌릴 뻔했지만, 아들로써의 그의 위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분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큰 소리로 울부짖게 하는 것입니다. - "난 무엇인가의 가치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들이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한 아무도 이것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랑이 제 마음을 저항할 수

³⁶ 마가복음 1:13

없는 방식으로 끌어당긴다고 당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항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결의가 굳으십니다!

예수께서 가장 취약한 지점에 계실 때 - 지치고 배고픔과 그리고 고독할 때, 인류를 타협으로 몰아넣는 모든 것들 - 사탄은 핵심의 쟁점에 다가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³⁷ 그 시험은 아들의 자격을 제외하고는 또 무엇이겠는가? 예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막에 계실 생각이었는지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록에는 그분이 40 일 안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그곳에 계셨고, 그분을 먹여줄 까마귀도 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만나도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에 대해 착각한 것이었을까요?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사탄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깨뜨릴 것을 시도하기 위해 식욕의 매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른 40 일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만약 예수께서 돌들을 빵으로 바꾸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을 것이고, 그 의심은 그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를 넘어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³⁷ 마태복음 4:3 NIV:개역개정

예수님께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도록 돌들을 빵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적과 성취에 의한 정체성인 사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문이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취하는 것에 의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몰아가고, 수면과 휴식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과 성경 공부를 무시하고, 사무실에 늦게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필수적인 가족 시간을 놓치고 - 단지 그 승진 혹은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는가? 많은 경우에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반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몇 가지 위대한 행위를 행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목상을 위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을 때, 당신의 머릿속이 그날 해야 할 모든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여 더는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되어 당신은 단지 5 분간의 기도로 타협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로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하시나요?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일까요? 만약 당신이 하루의 마지막에 도달했고, 당신이 별로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여도,당신은 여전히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실망하고 약간 우울할까요? 당신은 '할 일'의 목록에서 지울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을 때 당신이 병동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낭비"에 대해 동요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모두 빠진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이브에 의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불안 요인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커버하기 위해 영적이고, 정신적인 무화과 잎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 쉬운 목표물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항상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반응하는 반면, 안전한 사람은 심지어 폐를 끼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로트와일러를 갖고 있었던 친구와 함께 걸었던 시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걸어서 훨씬 더 작은 개를 키우고 있는 이웃집을 지나 갔습니다. 그 작은 개는 로트와일러에게 주의를 끌려고 요란하게 짖어대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로트와일러는 심지어 그 작은 개를 쳐다보기 위해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개가 "로트와일러 씨,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서 당신처럼 큰 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 주인에게 증명해 보이겠소."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로트와일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있어 도전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치에 무엇을 더할 것일까요? 우리는 걸어서 훨씬 더 작은 개를 키우고 있는 이웃집을 지나갔습니다. 그 작은 개는 로트와일러에게 주의를 끌려고 요란하게 계속 짖어대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심지어 그 작은 개를 쳐다보기 위해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개가 "로트와일러 씨,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서 당신처럼 큰 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 주인에게 증명해 보이겠소."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로트와일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있어 도전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치에 무엇을 더할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유혹의 광야에 들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 가족은 그분이 한 일에 의해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분이 믿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에 묶어두고 우리를 악마의 노예로 만드는 걸보기에는 무적처럼 보이는 무가치함인 골리앗을 패배시키기 위해 다윗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그리스도의 유혹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 본성에 얽매임을 받은 예수님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33
2.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셨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사탄이 악의 모든 세력을 대표했듯이 그의 승리는 우리가 영원히 어둠의 힘의 노예로 남을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9
3. 예수님께서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40 일 동안 우롱한 것처럼 광야에서 40 일 동안 사탄의 도발과 유혹에 직면하고 계셨었습니다. 사무엘상 17:16
4. 사탄/골리앗은 그 자신의 힘으로 왔지만, 예수님/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분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거스른 자를 폭로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45
5. 예수께서 사용하신 그 무기들은 세상 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신뢰하셨으며 그분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탄의 마음을 노출했습니다.

그 유사점들은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골리앗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종교, 그리고 나를 개인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산비탈에 서 있는 이스라엘 병사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강하면 왜 저와 싸우지 않는 거죠? 당신은, 나약하고 쓸모없고 당신의 신에게 부끄러운 존재죠?" 이런 유형의 학대의 말을 40 일 동안 듣는다는 것은 정말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의 크기를 좀 보세요! 그의 갑옷은, 그의 괴물 같은 목소리로 계곡을 가로질러 모욕을 가할 때 태양광선 속에서 반짝입니다. 상황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노예제에 대한 체념의 가라앉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른가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과 약점에 대해 사탄의 도발이 있습니다. 그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고 압도적으로 보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몇 번이고 다시 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는 노예제에 대한 체념의 가라앉는 느낌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노예제가 결코 완패할 수 없으며, 그 죄는 항상 우리를 보다 낮게 할 것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 대한 너무나 슬픈 행복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우리 진영에 있어, 그가 우리를 악마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유혹의 광야에서의 그분의 승리는 전체 인간 가족에게 승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골리앗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예수께서 당신의 유혹의 머리를 차단하는 것을 산허리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믿음의 가장 핵심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저를 무가치함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저의 반항과 자부심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는 나의 발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견고한 반석 위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개인적으로 의문에 직면하셨고

우리들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여, 나와 함께 노래 부르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듀라셀의 사슬을 부수셨고, 우리를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11 장. 천국의 문을 열다

한 줄기의 빛이 어둠을 뚫고 새벽이 왔음을 알립니다. 그것은 또한 과제를 시작해야 할 시간의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맥박은 빨라지고, 여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호흡은 짧아집니다. 그들이 여명 속으로 향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삭을 안고 있었던 것과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풀려났던 엄청난 기쁨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이삭이 그의 아빠의 침대로 뛰어들어 바싹 달라붙어 아담과 이브 그리고 노아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며 다가섰던 기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과제를 심사숙고하면서, 그의 어깨에 거대한 납덩이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줄 산들 중의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2:2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의 모든 힘을 소환합니다. 거기에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주어지지 않고 단지 명령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셨고, 그분이 그가 따라야 할 유일한 안전한

길임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힘들었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투쟁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쁘게 그는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 자신이 바쳐지는 것을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그의 운명에서 구하기 위해 그가 하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자신의 고통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힘들게 호흡을 들이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라질 악몽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삭이 질문을 던졌을 시에 현실이 엄습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화살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 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는 재빠르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³⁸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고통스럽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해심을 드러냅니다. 이삭은 젊은 사람이라 아버지를 쉽게 제압하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의 훈육을 배웠고 아버지의 지혜에 자신의 욕망을 굴복시켰습니다. 모든 하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의 소중한 아들을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제 믿음을 거스르는 일련의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아브라함은 사이클론 적 바람 속에서 키가 큰

³⁸ 창세기 22:7-8

삼나무처럼 서 있는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지만, 그 자신의 요청에 대한 이해를 수행할 그의 결의를 양보하지 않습니다.³⁹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고통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고 그의 힘은 빠지기 시작하지만, 그는 굳게 버티고 있습니다. 번제 헌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끝낼 칼을 내리꽂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순간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고 제 아들의 입장이 이삭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애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느꼈던 중압감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이미지는 즉시 멈추어버리고 맙니다. 깊은 내면의 무언가가 손을 뻗어와 이미지가 완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감정적으로 제 마음은 그런 장면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포와 희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깊이를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왕국의 본질은 그들 사이에 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접근의 핵심은 그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에서 드러내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관계적 차원을 십자가에 추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요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³⁹ 책 · 아가페 제 24 장 -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소중한 관계의 분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된다는 생각은 모든 인간 정신 속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제가 강연 업무를 해야 할 약속이 있어서 제 가족들과 불과 일주일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후에서야, 제 마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나의 가족과의 관계를 거래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역겹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기꺼이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하늘의 문을 걸어 들어가 우리 창조주와 그분의 아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군가가 응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분이 다시 일어나셔서 그분의 아버지와 재회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 만약 당신이 이 생각들을 즐겼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을 때 그분의 기분이 어떠셨는지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반항적인 세상의 죄책감이 예수님께 굴러갔고,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불신에 의해 가려져 있을 때 예수께서는 영원토록 항상 그분의 기쁨이었던 애정 어린 얼굴을 찾기 위해서 어둠 속을 탐색하셨었지만, 죄는 그분 아버지의 얼굴을 감 추웠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그분과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의 희망은 삼켜졌고 죽음만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영원히 단절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였으므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분을 야기해 죄인들이 죄책감 때문에 느끼는 것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라고 울부짖었던 가인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느끼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느끼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르는 이 경험을 통과하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타파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그림을 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길 원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바치시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그를 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정의의 우리 인간의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지하신 사실은 이것이 그분의 욕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희망을 모두 하나님께 기꺼이 굴복하는 신앙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물로 아브라함에게 숫양을 제공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의에 대한 인식의 대체물을 제공해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을 것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이 끊어진 그 끔찍한 날의 지진과 어둠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널 보내줄 수 있겠느냐?" 바로 지옥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분들의 관계를 갈라놓음으로써 지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 그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내는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와는 매우 정반대의 것이 될 수 있는 것 외 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공포를 맛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 ⁴⁰ 이제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지옥의 참담한 무게를 경험하시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영구히 그들 자신을 단절시키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처럼, 우리는 절대 그곳에 진입해서 대성통곡하고 이를 갈아야 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도전은 우리가 무가치하고 반항적이며 결단력이 있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여정을 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일에 의해 정체성을 새기며)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듀라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성취에 의한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까지, 다시 말해서 행위에 의한 구원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의

⁴⁰ 고린도전서 15:55

여정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 여정의 도전과 특권에 할애될 것입니다.

제 3 부. 자식의 관계로 돌아가는 여정

12 장. 듀라셀에 의해 동력을 부여받는 생명

기대감에 찬 공기가 실내에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강당에 있는 제 동료 학생들과 같이 앉아서 친숙한 이름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그 해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했었고, 내 자신에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동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망이 커졌습니다.

그 학교는 한 해 동안 이론 성과에 대해 다양한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하는 동안, 저는 아주 흥미로운 작은 마인드 게임을 합니다. "당신은 올해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다음 상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쟁취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찬스는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읽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자 제 심장은 기대감에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그 이름을 듣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제 친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흥미로워지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제 친구와 그들의 성공에 손뼉을 치고 있지만 제 내부에서는 아주 다른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왜 그가 그것을 얻었지? 저는 그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그에게 그것을 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는 교사 중 한 사람과 친척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이 그를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결과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종, 저는 손뼉을 치고 미소를 지으며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울한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다음 몇 시간 동안 저의 마음은 우울하고 약간 화가 나 있습니다. 듀라셀에 의해 동력원을 부여받은 생명의 또 다른 날일 뿐입니다.

어린이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 그들은 동등한 중에서 첫 번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비교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의 생일을 위해 무언가를 구입하고 그들의 형제들을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았던 오류를 범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모든 지옥이 느슨해져 부서지는 것 같고, 당신의 박탈당한 아이는 눈물과 비명 그리고 때로는 짜증 속에서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나를 지켜봐"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당신의 아이 중 한 명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미끄러져 내려올 때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의 뒤에서 "나 지켜봐"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당신은 돌아서서 당신의 다른 아이가 그네 위에서 스윙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이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면 당신의 아이가 알아차리고 "나 지켜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관총의 발포처럼 "나 지켜봐" 의 전체 문자열에 강요되어, 각각의 '나 지켜봐'라는 볼륨과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아 당신이 막 응석을 받아 주려 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 사랑스러운 작은 곡조가 들려옵니다. "그는 더 가지고 있어 나보다, 불공평해, 나는 더 많이 원해." 이것은 듀라셀에 의해 동력을 부여받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조금 더 정제되려고 노력하지만, 비교와 관심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학교 교육과정은 비교와 주의력 추구에 대해서 이러한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환경의 애정에서 벗어나 당신의 동료 친구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때 지어 있는 것은 듀라셀 원칙을 내장할 수 있는 완벽한 문화를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12 년은 다수의 분야 중 하나 또는 다수의 분야에서 비교적 뛰어나 우위를 점해야만 밝고 행복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더 지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 지능은 당신을 멀리 데려다줄 자산입니다. 당신은 지식을 유지하고

역행하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왜 그들의 손에 더 재능이 있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보다 더 높은 상을 받는 경향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⁴¹ 여러분은 정원을 돌보아 가꾸는 일, 혹은 자동차 엔진을 고치는 방법을 정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을는지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소도 있지만, 운세가 가장 상층부의 더미에 학자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년 아이들은 성적표를 집에 가지고 오고, 그들은 성적표를 바탕으로 그들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그들의 손에 선천적으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의 수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그것들이 종종 "그건 내 능력 밖이야." 또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 " 또는 노골적인 "난 그러기엔 너무 어리석어"와 같은 논평으로서 매우 자기 스스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것 없이 성공하는 방법은 그 밖에 또 있습니다. 모든 학교 시스템에는 아이들이 운동 능력 비교 가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그들이 갈망하는 힘과 영광을 가져다줄 것을 바라며 운동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천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스포츠는 단지 게임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월드컵 기간 유럽의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모든 영국 축구 팬들에게 그걸 말해 주세요. 사랑하는 크리켓팀이 월드컵에서 지고

⁴¹ 서양문화는 실용적이라기보다 학술적인 경향을 띠는 그리스 문화에 매우 많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 장의 전 세계를 이끄는 것으로 서술된 짐승이 기본적으로 그리스 왕국을 대표하는 표범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지켜보던 그 남자는 어떨까요? 그 결과 그는 심장 마비를 일으켜 경기가 끝나기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왜 다양한 스포츠맨들이 두 나무막대기 사이에 그것을 얻으려고 가죽공 주위를 걷어차 놓기 위해 시도하는 것에 연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스포츠는 달성을 통해 가치를 획득하고, 그리고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주목을 얻는 가장 간단한 수단 중 하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심각한 비즈니스입니다. 듀라셀에 먹이를 공급하고 우리가 성취보다는 관계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없애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2 위를 하게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패배로 인한 감정적인 트라우마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축구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골 시도에 실패하여서 그의 팀이 귀중한 트로피를 잃는 탓에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땅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지켜본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의 코치가 필드 밖에서 그를 어시스트하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그가 얼마나 많은 가치가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느꼈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게임일 뿐이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가치와 수용을 위한 삶과 죽음의 투쟁인 게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욕구하는 성공과 행복을 주기를 바랄 수가 있는 다른 많은 신들을 열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의 광대뼈 구조나 가슴의 크기를 바탕으로 명성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험난한 세상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매일 밤마다

그녀들은 자신이 등급을 만들지 못했다고 느껴가며 울면서 잠이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거식증이라 불리는 이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을 굶기는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수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부의 창출의 영역, 직업의 지위 또는 심지어 도심 교외 지위의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화이트칼라 기업에서 몇 년간 일한 적이 있는데 서열 관계를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무실 가구의 종류와 품질에 의해 그 사람의 포지션이 알 수 있습니다. 탑 보스는 아래쪽 거리가 흰히 보이는 창문을 겸비한 그의 사무실을 위한 별도의 룸이 있습니다. 그는 팔걸이가 있는 가죽제의 높은 등받이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최신 컴퓨터가 그 위에 놓여 있는 채색을 한 커다란 나무 책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직위의 사람도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창문 너머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고 그의 의자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으며, 그의 컴퓨터 속도도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다음 직위의 사람은 자신의 사무실에 칸막이가 되어 있고 의자에 팔걸이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핸드프리 전화도 없고 그는 창문 밖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이지만, 기업 세계에서는 매우 진지한 일입니다. 사무실 가구는 당신의 직장 동료들과의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교 기회의 목록은 듀라셀의 세계에서는 끝이 없는 것들이지만 보통 그들은 몇 가지 기본 카테고리 중 하나에 속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1. 교육 수준
2. 운동 능력
3. 음악/예술적 능력
4. 직무상의 지위/소득 수준
5. 신체적 외모
6. 소유물/자산
7. 국적

이것들은 세상이 숭배하고 희망하는 그들을 지지하고 호의적으로 대할 신들입니다. 그들은 까다로운 작업 마스터들이며 보통 당신이 만약 그들에게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면 완전한 굴복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보통 가족과 친구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당신이 운이 좋다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사라지기 전에 영광의 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일동이 두라셀의 힘을 통해 이 신들의 노예가 되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들로부터입니다.

13 장. 천국의 계단

점점 날은 짧아지고 서늘해져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작은 계곡에 머지않아 내려앉을 살을 에는듯한 추위를 뚫고 벽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 공급할 장작더미를 쌓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 집의 남자는 부지런히 장작을 패고 있을 때 그의 눈 한구석에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얼굴을 들어 올려다보니 거기에는 어린 소년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것보다 더 빨리 장작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 남자는 그 사내아이의 대답함에 다소 재미있어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는 최고이에요." "아, 그러한 아빠가 있다니 넌 특권이구나."

그러한 것이 제 어린 시절의 소박함이었다. 이것들은 엄마와 아빠가 잘못을 행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사람들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 단순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잠시 짧은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끊임없는 비교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저는 제 교육 경험을 공유했던 아이들의 작은 커뮤니티 속에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비교의 수준이 그다지 치열하지 않아서, 저는 제 초기의 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좋은 추억으로 회상시켜줍니다. 많은 공작 수업과 게임 및 활동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앞당겨져 가져다 오게 되고 저는 듀라셀 왕국의 씩씩한 맛을 체험할 때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7 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저는 곧 새로운 아이들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제 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친구가 생겼었지만, 또한 몇몇 나쁜 제 또래와 조우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꽤 견고한 체격이었고, 두어 명의 마른 아이 몇 명은 제가 그들보다 약간 더 나은 패드가 들어간 것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제가 그들보다 뭔가를 더 얻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팻소," "팻 알버트," 그리고 "슬롭"은 제가 기억하는 이름들 중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조우했던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의 최대의 적은 나의 가치 감각을 파괴하기 위해 이 소년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저는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으므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전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물론 넌 내 아들이야." "아니 난 아니야!" 우리가 차를

물고 들어가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의 사냥감을 공격하기 위해 독수리처럼 지켜보고 있는 위협적인 한 쌍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 저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후 몇 분 동안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저는 발로 차고, 항의하고, 고함을 지르고, 제 의자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전형적인 행실이 나쁜 소년의 경우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 감각이 납작 무너져가고 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몇 가지 필사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왕따가 멈췄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진짜 실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미완성인 상태로 드러나는 잔혹함은 사탄의 비교 왕국의 원칙이 작용 중인 억제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보여주는 뻔뻔스러운 이기주의와 배은망덕한 행동에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다윗의 아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이 왕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단지 더 교활해져 가고 정제되어 갈 뿐입니다.

고등 중학교에 중반에 도달했을 즈음에는, 저는 프로그래밍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의 신, 스포츠의 신, 그리고 신체적인 외모의 신을 숭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의 신을 숭배하고 싶었지만, 일자리가 없었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은 제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분투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하고 있었고; 성취해내기 위해 분투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직 승자만이 받아들여지고, 패자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번, 학교에서 잘하고 싶은 저의

인센티브는 단순히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의 내용물을 즐기기 보다는 1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더 동기부여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신념을 보강할 수 있었던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두의 남자 주연 배우들은 어떤 젊은 아가씨의 마음을 녹일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연기되어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관계는 여러분이 성취한 것이었으며 그 젊은 아가씨는 친구 라기보다는 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잠재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꿈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제 침대 위에 누워서, 크리켓 시합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해 결승점을 터뜨리거나, 또는 결승골을 치거나, 또는 곤경에 처한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그의 목숨과 사지를 거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이러한 꿈들이 제 가치 시스템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더 많이 꿈을 꾸면 꿀수록 저는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굳은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힘든 부분은 이러한 목표를 진공 상태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원했지만 제 꿈을 먼저 원했습니다. 저는 제 꿈이 위협받지 않을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제 꿈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스포츠와 교육에서는 뛰어났습니다; 음..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나쁘지 않았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다른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정상에

오르면, 저는 거기에 머무르려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어깨너머로 제 소중한 위치를 노리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는 평판의 기대가 있습니다. 일단 평판을 확립했을 때에, 만약 내가 잘못을 했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건 끔찍할 것도 같아, 그래서 나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더욱 각오가 굳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제가 저의 모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까지 한동안 격렬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음이 틀림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인들을 잘 섬겼으나, 이제 그들은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제게 지속적인 가치 감각을 부여할 수 없었던 시스템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드러내 보이는 변동성과 파괴성 그리고 왜 그들 중 많은 이가 자살을 하거나, 폭음과 마약에 의존하는 이유를 분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들이 학습되어왔던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그들의 꿈을 이룰 수가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절대 위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래서 그들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농구 경기에 출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경기는 아슬아슬했었고 압박감이 가해졌습니다. 제가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갑자기 후프를 향해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가 공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 밖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튕겨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저는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와 "파울"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터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 모든 분노가 제 안에서 끓어 올라왔습니다; 세상을 약속했던 이 비참한 시스템이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분노 말입니다. 저는 심판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서 이 인치 떨어진 곳에 서서 외설적인 데시벨 수준까지 소리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툭하고 부러졌고 저는 참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코트에서 제거당했고 대회에서의 참가를 금지당했습니다. 제가 걸어 나갈 때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을 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야? 너는 정말로 그것을 저 밖에서 잃어버렸어; 너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니까!" 저는 저 자신을 정말로 돌아보고, 제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더 나은 것을 찾게 하기 위해 저를 끌어당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의 적 또한 이를 인식하고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깊이 몰아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을 때가 온 것을 느끼고 두 배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흡연자처럼. 제 꿈이 희미해지자 저는 철수하기 시작했고 저는 상당히 침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그 슬픈 상태에 대해 불평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10 대 소년들의 방이 그렇듯이 그것은 최적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시다. 저는 그녀가 제 공간에 들어와서 제 주위에 명령하고 있던 것에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일련의 선택 단어를 연속으로 날리고 그녀에게 저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제 친구 중 많은 수가 매우 비하적인 언어로 그들의 어머니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어느 정도 의식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제 친구 중 몇몇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해 그런 말들을 내뱉었을 때, 그것은 마치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존엄성 조각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요지에 있었고, 그곳은 어떤 장소인지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로에 섰다는 이 진정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그 넓은 길은, 와인과 여자와 노래로 가득 찬 크게 열린 턱으로 저를 손짓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종교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치 제가 활활 불타오르는 혜성처럼 넓은 길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저는 더 이상 크리스천인 척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환경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참으로 크리스천인 적이 없었던 것이 이제 그것이 나에게 명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나 악마 중 하나였습니다. 고맙게도, 저는 성경의 진짜 예수님을 찾으려고 시도해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저희 집에 있던 책을 읽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정로의 계단 이라고 불리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그 타이틀은 제 필요에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기 위한 배고픔과 절박한

심정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계단을 찾아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더는 저는 사탄의 왕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서 저자는 예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품고 있던 거짓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바싹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여름비와도 같은 그 말들을 마셨습니다. 저자는 저에게 갯세마네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에 관해 생각하고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실제로 서서 그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매우 현실인 것처럼 보였으며, 저는 그분이 거기에 매달려 계신다는 강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저를 사랑하셨고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의 절실한 필요성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저의 절친한 친구로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저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그곳에서 보았을 때, 저는 그분께서 저를 기꺼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감사의 감각을 느꼈고 저는 제가 수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 불안, 우울함, 두려움의 무게가 그 순간 제 등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느낀 적이 없었던 평안함이 제 가슴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저는 기쁨을 위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나의 어둠을 뚫고 들어왔던 것이었고, 밝은 낮의 빛으로 그것을 뚫었습니다.

14 장. 같은 신들, 다른 이름들

그 방은 활발함, 웃음, 음악, 그리고 젊음의 흥분으로 활기가 살아있었습니다. 방 앞쪽을 향해서 두 개의 커다란 스피커에서 최신 록 밴드들의 음악이 쿵쾅거리며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의 그룹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조직했었고- 음, 적어도 저는 그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가서 앉았더니, 거기에는 한 애니메이션 10 대 청소년의 최신 영화 중 한 편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분위기에 흠뻑 젖어보려고 했지만 뭔가 옳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바깥쪽 테라스로 가서 그들이 꿈에 그리던 여성들을 사로잡기 위한 그들의 최근의 위업을 다해 토론하고 있던 몇몇 젊은 '로메오'들과

합류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걸 그냥 즐긴 건 아니었습니다. 이봐요 소년, 나한테 무슨 문제 있어? 그 음악이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방을 가로질러 훔쳐 건너다보니 제가 매우 모욕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재생 중인 비디오로부터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생각은 화물열차처럼 저를 덮쳤고, 전 이런 게 싫었어요!

제 마음은 가능한 시나리오들로 의해 빨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저의 재미에 대한 정의였지만, 이제는 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제 마음을 확고히 붙잡고 있어서 즐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연 어딘가에서 나의 재미난 인생은 끝났고, 저는 이제 더는 자신을 즐길 수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집 앞으로 뛰쳐나가 집 앞 잔디밭에서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것은 예수와의 저의 '다마스쿠스 길에서의 경험'이 있던 몇 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많은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었고, 성경은 이제 막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부 마시고 있었고,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오셨을 때, 그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제 언어 중 일부가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것들은 제 농담 중 일부는 꽤 저속하며, 제 생활방식의 그 확실한 어떤 측면은 제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새로운 방향과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그 왕국으로의 여정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외국에 가서 언어와 관습을 처음부터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왕국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배우고 싶었지만, 저는 색다른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파티가 있던 날 밤이 되어서야 저는 얼마나 급진적으로 탈바꿈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 제 마음을 사로잡으신 이후로, 그분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그분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던 파티 날 밤, 저는 그분께서 저를 그런 유형의 생활로부터 멀리 불러내셨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미지의 것에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돌봐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고 제 감정보다 그분을 믿는 것이 더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저는 몇 주 동안 그저 떠다녔습니다. 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함께 남아 계시는 그분에 대한 특별한 밀접함을 감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를 위하여 하늘의 문들을 열어 주셨으나, 이제 그분은 제가 그 듀라셀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저의 실적과 성취를 제 가치 시스템의 중심으로 만든 인생 철학을 뿌리 뽑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모든 자녀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빛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구세주의 걸음을 따라 그 새로운 왕국의 원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무릎을 꿇은 첫날 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감미로운 영이 느껴졌지만, 저를 괴롭혔던 제 옛 삶에서 온 다른 영이 있었습니다. 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저희가 기도하다 보니 이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는 없어, 저렇게 말 주변이 좋아." 제 마음은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 원의 기도가 저에게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고 누구나 제 말을 듣고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기도 모임이었어요, 제가 아니라요!

여기에 듀라셀의 저주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찾아서 따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제 옛 생활의 원리들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날 다시 끌어당기어, 기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반대로 기도 안에서의 저의 퍼포먼스를 쟁점으로 삼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비록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적 용어로 유치원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자주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배워왔던 것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사소한 것이 계속 저를 괴롭히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쉽게 그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적합한 서적과 구절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더듬거리며 찾고 있었고 제가 맨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저 기도드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가! 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받아들인 그 수년간의 훈련이 저의 새로운 기독교 여정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제 언어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기는 상당히 쉬웠지만, 듀라셀이 운영하는 그 축수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깨닫는 데는 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사랑이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주신 제 영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에 관해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었지만 제 예전의 삶이 잠복해 있었고, 저를 움아매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다 성서 속의 것들에 대한 지식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성장하는 성서 지식은 저에게 더 말할 자신감을 주었고, 곧 저는 소그룹을 취하고 있었고 그런 다음 더 큰 그룹들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저와 제 주변의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축복이었지만 저는 천천히, 꾸준히 관계를 통한 가치보다는 성과에 의한 가치의 플랫폼 쪽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지만, 그것은 일어납니다. 돌이켜 보니 저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같은 신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성경을 믿으면서도 세상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야생의 생활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 의해서 가치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교육	성경 지식
운동능력	대중 연설 능력
예술적 능력	음악사역
직무상태	교회 사무실
소유물	영적 선물들
물리적 외모	교회식 퍼레이드
국적	보수 / 자유주의적인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듀라셀의 음험한 힘으로 장악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교회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려고 추구했던 신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좋은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로서는 교회 안에서의 분노와 쓰라림과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심이 두터워 보이기는 너무나 쉬운데, 교회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신이 그들의 등 뒤에서 그들에 대해 어떤 말을 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당신이랑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녀에게 그녀의 연주하는 게 표준 이하의 수준이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간 피아니스트는

어떨까요? 교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정통의 교리에 대한 그들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렇게 그들이 교회에서 그들을 제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교리적 경찰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위원회를 강제로 장악해서 그들의 새로운 예배 스타일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진보주의자'들은 어떨까요? 목록은 끝이 없으며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커다란 적인 그가 우리를 이 곡조에 맞춰 춤을 추게 유지할 수 있는 한,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그의 왕국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탄 왕국의 원칙에 의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교회 내에서의 높은 수준의 분열과 기독교인의 사랑의 부족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본다면 교회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랑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방식에도 훨씬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신들의 이런 미묘한 옮겨짐이 교회의 공동체 경험에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4 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수용'했을 때, 기독교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한 가지 포인트는 판테온에 있던 이교도 신들의 조각상 중 상당수가 기독교 교회로 이관되면서 그 이름들이 바뀌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모세와 다윗, 베드로 등 성경 속 등장인물들처럼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들, 다른 이름으로! 그것을 어떻게 차려입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건 여전히 이교도인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의 교회가 사도의 진리로부터 종교를 배교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 자기 삶에서 같은 원칙이 작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형제들의 눈 속에서 티끌을 찾아 제거하려 하기 전에 우리 자기 눈에 있는 통나무를 확실히 다루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들 - 그의 제자들의 여정을 공부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권력과 위치에 대한 이 문제는 자주 고개를 들 때가 많았습니다. 소수의 성경 구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마태복음 18:1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 즉 사리사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한 그들의 신념에 흥분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했지만, 제가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저의 마음은 나의 관계에서 저의 기도의 퍼포먼스로 바뀌어간 것처럼, 그 제자들은 메시아와 그들의 관계에서 그분의 새 왕국에서의 그들의 위치로 옮겨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매 (3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 하시니 (37)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 하거늘 마가복음- 10:35-37

위치와 지위의 신은 야곱과 요한이 배우고 있는 새 왕국의 원칙을 너무나도 추월해 버렸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그들이 앉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께서는 옛 왕국의 원칙을 놓지 않으셨고 그들의 지속적인 실패에서도 절대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탄 왕국의 원칙이 정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려면 우리들에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오래된 원칙들을 인계받게 하도록 허용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마가복음- 10:41

우리가 옛 왕국의 원칙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허락할 때, 항상 다툼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요한이 한 행동의 그 무엇이 다른 제자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은 "우리가 당신들보다 낫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할 의도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의 언제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빌려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자신이 자란 곳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그들의 이해를 확장하려 시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45)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42-45

이 말들이 우리의 귓가에 영원히 울리게 하여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위대해지시길 소망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기보다는 그들을 섬기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교도(이방인)들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한 것을 더 잘하며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여 누가 보스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즐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묘하게도 이와 동일한 정신이 흔히 교회에 자신들의 의지와 권위를 강요하려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그 교회를 규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로부터 2 천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혼들의 적은 우리를 우리 예전 사고방식으로 다시 되돌려 가도록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명시했듯이, 사탄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도록 우리가 유혹하기 쉽게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우리의 깊은 불안정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얻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돌을 빵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듀라셀의 원칙에 대해 찾아낸 저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본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3년이 넘는 세월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하늘 왕국에 대해 최대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는 후에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당일 밤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옛 삶의 원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21) ¶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22)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 그들이 자기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24) ¶ 그분께서 자기들 중의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으며.

누가복음- 22:20-24

우주는 본 적이 없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시연의 바로 전날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그분의 왕국을 더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 중 어느 것이 가장 위대한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지점에서의 비애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그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가 있는지 - 열성적인 예수의 추종자, 이들 같이 누가 가장 위대한가에 대해 아직도 우리들 자신 사이에서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듀라셀의 원칙에 의해 통제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단 하나뿐이고; 그것은 교회에서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의 온전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기 추구적인 원칙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15 장. 어떻게 읽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놓여있을 그 잠재적인 전망에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대규모 제조사의 책임자는 당신이 작업한 특수한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제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근사한 작은 동네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었던 당신은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당신의 꿈을 현실로 탈바꿈시켜줄 이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확인합니다. 드디어 그가 도착했고 당신은 그와 힘차게 악수를 한 다음, 당신 둘 다 레스토랑 안으로 이동해서 당신들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당신의 식사 파트너는 당신에게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짝 물어봅니다. 당신의 바로 뒤에 있는 그가 그의 수프를 후루룩 마시는 진짜 예술을 개발한 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며 그걸 털어내지만 잠시 후엔 조금 짜증 나긴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매너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당신은 혼자 생각하지만, 당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깨끗이 털어 버리십시오. 당신의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대화는 잘 진행되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디자인의 몇 가지 여분의 이점에 대해 바로 토론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갑자기 당신의 뒤에 있던 남성이 당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나이프가 적어도 덜거덕거릴 끔찍한 트림을 합니다. 매너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특이한 개인에게 모든 시선이 갑자기 고정되었습니다. 실내는 킁킁거리는 웃음소리와 경악과 혐오감이 어우러진 억눌린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레스토랑 주인이 나와서 그 남자에게 그의 타입은 레스토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면서 나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이 같은 남자가 중국의 문화를 반영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면, 그 누구도 눈꺼풀을 깜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호스트와 안주인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에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악수를 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상당히 무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⁴²

⁴² <http://www.chinawestexchange.com/Chinese/Culture/customs.htm>

자신이 어느 문화나 세계관에서 왔느냐에 따라 어떻게 같은 액션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 대(對) 사탄 왕국이라는 두 가지 다른 문화를 보았을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토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이름을 취하는 많은 그룹을 우리는 조사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토대 위에 그렇게 많은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찾게 돼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의 여정은 문화의 이전과 세계관의 이전이 수반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천국의 방식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데 종종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해서 서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행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와 지위에 교육을 받았던 세상에서 빠져서 나왔지만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슬프게도 이런 경우가 많지도 않았었고 기독교 신앙과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모순과 이단, 언쟁은 합법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천국의 틀보다는 듀라셀의 틀에서 성경을 읽는 데서 직접적으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 장에 나오는 율법교사와의 그분의 토론에서 이 점을 제기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더 깊은 쟁점에 들어가기 위해 그분께서는 "너는 어떻게 읽느냐?"⁴³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무엇을 읽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또는 너는 읽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지상 세상의 듀라셀로부터 천국의 관계로 여정을 떠나고자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 어떻게 읽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은 기독교인의 걸터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과 당신이 섞여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경과 존엄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 토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율법사가 후자보다는 전자에 의한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말함으로써 예수께 바른 답을 줍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⁴⁴ 예수님께서서는 사실상 "정확히, 이것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관련된 것의

⁴³ 누가복음 10:25,26

⁴⁴ 누가복음 10:27

완전한 함축을 깨달았던 율법사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물어봄으로써 의미를 비틀려 합니다. 성경의 의미는 단순하지만 듀라셀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마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행동합니다. 옛것을 풀어주고 새것을 온전히 포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렇게 많은 생명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믿으면서도 사탄의 왕국에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그 결과로 혼란과 좌절, 악이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에 의해 권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 십계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쟁점에 대해 기독교 신앙 전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십계명 안에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속된 관계에 대한 서술로서 접근합니다.

역으로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관계 속에 의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자유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수행을 추구하든 또는 추구하지 않든 간에, 그 쟁점은 여전히 관계보다는 실적입니다. 이들 그룹 중 어느 쪽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과의 신앙에 입각한 관계의 맥락에서 십계명을 포용하지 않는 한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걸어감에 있어 반 퍼포먼스 자세와 승리의 불가능성을 채택하는 기독교인 그룹에 있어, 그것은 이내 그들이 섬기는 신 또한 수행할 수 없게 됨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흐름과 인정에 대한 세속적인 열망을 결합하면 문자 그대로 6 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기독교의 학자, 교사 및, 신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교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대답을 건네주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날 그렇게 많은 학자가 "네, 우리는 6 일간의 창조를 믿지만, 그들은 어떤 부류의 날입니까?"라고 말합니다. 사악함은 언제나 성경을 자기 자신에게 맞게 뒤틀리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고 ;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러나 세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악귀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갑니다.

일단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고 성경의 명확한 진술에 대해 교활한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남녀의 역할을 거절함과 동시에 동성애를 기독교의 규범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기는 매우 쉽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하늘 왕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가치란 항상 위치에 의한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과 지위와 퍼포먼스의 원리에 들어맞도록 뒤틀리고 돌려서 가르친 후에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 나열할 수 있었지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모두가 왔던 왕국보다는 그분의 왕국 원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요점이 분명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6 장. 더 이상 종이 아닌

그 특별한 시간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 6 살짜리 아들과 저는 그 차로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음, 그건 제 소중한 아들의 경험이 허락하는 한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차륜이 체계적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꽤 심오한 무엇인가의 직전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었는데, 그것이 나왔습니다. "아빠 아시잖아요, 저는 아빠가 가끔 사장이시면 일이 훨씬 더 잘 될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사장이었기도 하고요." "음 아들아, 그건 분명 흥미로운 제안이구나."라고 나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제안이 왜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 정당한 좋은 이유를 생각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만약 제가 그의 제안 중 하나를 생각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 둘 다 곤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음, 그건 온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야, 아들이야." "근데 왜 늘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줘야 하는 거야?" "자,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분을 위해서 네가 강한 젊은이가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셨지, 그분이 내 상사이시니까 나는 그분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단다."

육아는 진정한 학습 곡선입니다. "아들, 밥 먹는 동안만 앉아주세요." "어휴, 불공평해!" 스위트, 장난감 좀 주워서 치워 주세요." "어휴 엄마,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우리 아들,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야." 울고, 징징거리고, 고함치고, "하지만 넌 지금 자러 가지 않을 거지." 왜 내가 해야만 하지?"

이 모든 규칙과 규정들! 당신은 언제나 부모님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당신이 그들이 소화가 방해되지 않도록 식탁에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먹기를 당신이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은 그들이 나이가 더 들어갔을 때 더 조직화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잘 정돈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는 건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부모는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어 함을 왜 아이들은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들은 단지 삶의 함정과 위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뽑았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4:1

바울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는 그 하인과 그의 주인과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묘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훈련시켜야만 하는데 듀라셀의 본성을 가진 아들은 이 모든 훈련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줄 많은 교훈은 그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이며 종종 하인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힘든 일입니다. 소년은 쉽게 궁금해할지도 모르며 " 아버지는 왜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일까? 노예처럼 느껴져, "아들아, 이걸 해, 저건 하면 안 돼, 그것은 공평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준비시키려 하실 때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조건을 다루기 힘들고 엄하게 바라보며, 종종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셨을까, 또는 기독교인의 삶은 왜 이렇게 억제적으로 보입니까? " 또한 교회에 합류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어린애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저

종인 것에 만족하는 듯하며, 기독교인 삶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들은 그들의 그 노력이 보답받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탕한 아들 이야기 속의 형의 감정에 휩싸일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의 많은 당혹스러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그 규칙과 규제들은 더는 우리가 재미를 보는 것을 멈추기 위한 제한과 경계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경의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온전한 유산을 받아주기를 갈망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밝히는 자유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 당하였느니라. (4)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5)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갈라디아서 4:3-8

이것들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입양을 확실히 확보하는 데 있어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사탄 왕국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듀라셀의 폭정으로부터 빠져나와 해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강인하고 고귀하게 서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속에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빠, 아빠" 당신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매우 안전함을 느끼고 당신은 그분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깊은 바람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 빛의 당신의 아버지께로 어린애와 같은 송배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이 자유를 경험하기까지 당신은 내일 당신의 퇴직금이 발급되어 지급될 것이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종으로 항상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상속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께 와서 우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신다고 자신 있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왕국의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듀라셀의 노예 상태를 깨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6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애정 어린 포옹 속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면하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과업에 대해 논의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그 요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인류에게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하는 수단은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제공합니다.
2. 그들이 그분의 성품과 왕국에 대해 틀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든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3. 그들의 죄의식과 불안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4. 그들의 목적의식과 그들의 존재 이유 또는 그들의 운명을 복원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5. 위의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 자신의 생명을 몰수당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6.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정의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반란을 무시할 수 없으시고 괜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는 동안 그들이 한 선택의 완전한 결과가 그들에게 떨어질 것을 허용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한 일의 오류를 인식하기 시작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업에 대한 그분의 사역 안에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여섯 가지 도전 모두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된 저지름을 떼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그것은 훨씬, 더 깊습니다.

지금 바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듀라셀로부터의 해방되는 당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의 당신이 그분께서 흠모하는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책감과 원망과 자존심과 쓰라림을 그분 위에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기쁨에 찬 충만함이 지금 바로 당신의 영혼을 범람시키는 것을 그저 허락만 해주십시오. 당신이 이미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듀라셀을 탈출하는 비결은 더는 종이 아니라

17 장. 바빌론의 몰락

그것은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독일 기갑사단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전역을 가로질러 질주했고, 단 하룻밤 만에 이들 나라는 나치 전쟁 군사력의 철권통치 아래 단단히 갇혔습니다. 점령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시들어 가는 경험입니다. 제 아버지는 네덜란드 북부의 아센 도시에서 이 시기를 헤치고 살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독일 전쟁 군사력에 봉사하라는 압박받았습니다. 제보자들은 두려운 비밀경찰에 그들을 신고할 준비가 되어있었고, 어느 때라도 그들은 문의 노크를 받을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나가 다시는 못 볼지도 모릅니다. 나치 정권은 모든 경쟁자를 제거할

것이고 공포를 통해 통치하며 악마 같은 만족감으로 권력을 과시하는 통제 정신인 듀라셀의 모든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자원을 박탈당하고 고갈되어 그것을 묶은 억압적인 쇠사슬에 지쳐 버린 홀란트는 1944년 겨울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집이 뿔 나무 감으로 목재가 벗겨져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그들은 집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수천 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었습니다. 이 악몽은 얼마나 계속될까요?

마침내 독일군은 후퇴하면서 다리를 폭파하고, 군수품을 파괴하고, 가능한 한 많은 파괴를 남겼습니다. 제 아버지는 거리에서 춤추던 모든 사람과 식량 배급을 나눠주던 연합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그게 끝났다고 믿기는 거의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자유입니다!

가인의 영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이 지배권을 돌려주기 직전에, 이 불안정하고 질투심이 많고 무가치한 영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능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바다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1

이 짐승에게는 온 땅의 모든 민족에 대해 큰 권능과 권세의 권한을 부여받고 온 세상이 그 짐승의 권능에 그들 자신을 숭배하고 굴복합니다.⁴⁵ 이 짐승 같은 권능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 경배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 짐승이 전 세계를 그리 쉽게 그것을 따르도록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듀라셀 배터리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성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것을 격려하고, 우리 나름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자신의 무혈의 희생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응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이미 이 짐승의 권능 아래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의 원칙을 거부하고 두려움과 무력을 통해 전 세계적인 통제로 돌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의, 드러내는 외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가하게 앉아 계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짐승 같은 힘에 항복하지 말라고 세상에 경고하기 위해 필사적인 최종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메시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인류에게 주의를 환기하게 하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⁴⁵ 요한계시록 13:2,7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며 가인의 헌물이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⁴⁶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이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8

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라는 용어를 쓰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 바빌론의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니므롯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므롯은 흥미로운 캐릭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라고 알려줍니다.⁴⁷ 니므롯은 그 자신의 왕국을 확립한 최초의 기록된 인간입니다. 또 니므롯이 어느 시점에서 그의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 확실히 기능 장애가 있는 가족입니다! 니므롯이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였다는 몇몇 암시도 있습니다. 진상이 뭐든지 간에 니므롯의 가정은 가족 관계가 신성한 것인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에 따라 기반이 두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⁴⁶ 요한계시록 14:6,7

⁴⁷ 창세기 10:10

니므롯의 가정생활에서의 보안 결여는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는지 보다는 그가 무엇을 했는가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제 10 장에서 성경은 인류의 계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남자들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가족 관계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니므롯은 하지만 특이한 사냥꾼이자 특이한 지배자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대적하는)⁴⁸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이유로 아무개는 “주 앞에서 (대적하는)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과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첫 번째 중심지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였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스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곳은 위대한 도시입니다.
창세기 10:9-12 개역

니므롯은 그의 불안감에 내몰려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인근의 가족 부족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찰력 있는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⁴⁸ 이 앞에 이 단어를 (대적하는) 넣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통치자들의 권위는 친족이라는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수장의 우위는 부모의 통제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니므롯은 영토의 주권자였고, 인간들은 단지 그들의 거주민이었으며 개인적인 유대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장된 부족 - 가족 - 사회가 있었고; 지금은 국민 - 정치적 공동체 - 국가가 있었습니다.⁴⁹

오늘날 거의 전 세계가 니므롯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오늘날의 정부는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것이며, 부족적이고 유목민적이지 않습니다.

니므롯이 이 정치적 국가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순서대로 따랐던 단계를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에 의해 이 시스템을 표지화하셨으며, 그것은 바빌론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빌론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달하는지의 본질에 주목해 주십시오:

1. 그것은 아버지와 소원해진 아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2. 그다음 그 결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승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⁴⁹ A.T 존스, 성경의 제국 (리뷰 및 헤럴드 출판사, 1904) p 51.

3. 승인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종종 이 사람들을, 그들의 공허함과 무가치함을 상쇄하기 위해 필사적인 조치들로 내몰아줍니다

이것이 바빌론의 포도주가 그렇게 중독성 있게 만드는 비밀 재료입니다. 우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려는 결단이나 쓸모없는 감정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우리의 노력이 그저 전면적으로 실패했을 뿐이고, 이제 더 이상 시도할 의미가 없다고 느끼셨습니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 학교 또는 교회에서 권력 다툼에 휘말려 자기방어의 수단으로나 우리 자신들의 작은 왕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화가 나서 말을 했거나,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말을 자르거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세계가 이 잔으로부터 마시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바빌론의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빌론의 몰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빌론이 넘어져"라는 구절은 예레미야 51 장 8 절에서 직접 나온 것으로 예레미야 50 절과 51 절에서 그 문맥을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 50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길을 잃어버리고 안식처를 잃어버린 길 잃은 양으로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문자 그대로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굳게 붙들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진정한 고향, 그들의 안식처도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약속을 하십니다:

¶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당하였도다.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모든 자들이 그들을 굳게 붙들고 그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하였도다. (34)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가 그들의 사정을 철저히 변호하고 이로서 그 땅에 안식을 주며 바빌론의 거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50:33-34

그리고제 51 장에서 우리는 다음을 읽습니다: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7)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던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8)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9) 우리가 바빌론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되 그녀가 치료되지 아니하였은즉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녀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도다. (10)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자.

예레미야- 51:6-10

이 장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내어 인도하실 것인데 그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도다"라는 말은 심판과 비난 정죄에 대한 성명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자유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둘째 천사의 메시지에 함유된 바빌론의 멸망은 영적 이스라엘을 불안정과 무가치함,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몰아가는 통제의 정신으로부터 해방해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했을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무가치함이 휩쓸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이 서게 됩니다.

세 천사의 메시지는 엘리야 메시지라고도 불리는데,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의 4 장 6 절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한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해방될 것입니다.

바빌론과 그녀의 듀라셀 원칙을 버리십시오. 더 이상은 종으로 남아 있지마시고 그렇지만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으시고 당신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이 매일 우울증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동기 부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무가치함의 독성 영향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하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쓸모가 없다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어 옵니다. 대부분의 셀프 도움말 관련 서적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아껴주며 그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들 자신에게 말하도록 용기를 북돋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방법은 축복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 욕구를 완전하게 우회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축복의 말을 해 주는 부모와 같은 존재나 멘토. 당신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누군가로 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말을 듣는 이 강력한 경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세상의 많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가치를 찾게끔 눈을 멀게 하였고, 아버지의 경이로운 축복인 당신들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귀머거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